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080호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코스피 2068.05 (-3.18)
코스닥 671.56 (+0.71)
금리(국고채 3년) 1.92 (-0.02)
환율(원·달러) 1134.30 (+1.00) 〈14일〉

[산업]
정의선
커넥티드카·수소차로
유럽 공략 나선다
05

'삼바 고의분식' 결론에 삼성 반발… 소송전 예고

삼바 주식거래 당분간 정지
대표 해임권고, 檢고발 의결
뒤바뀐 결론에 투자자 멘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비롯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KRX)의 상장실질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감리 과정에서 제출된 내부 문건 등 이른바 '스모킹건'의 영향이 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잘못으로 봤다.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을 처음부터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2012,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다. 반면 2014년은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도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냈다.

김 위원장은 "2012~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사는 이전 년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식했지만 콜옵션의 공정가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6년 12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재감리 심사까지 모두 3차례의 감리위원회와 7번의 증선위가 열렸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툼의 장이 증선위에서 법정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 역시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소송과 함께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이번 증선위의 판단으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소송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날 증선위에 앞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 표현되어 있는대로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목표수준에 맞춘만큼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나유리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일지〉

시기		내용
2015년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나스닥 상장계획 발표
	11월	코스피 상장규정 개정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2016년 코스피 상장 준비 공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기업가치평가 전환
2016년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연기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금감원에 분식회계 문제 제기
2017년	4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착수
2018년	5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17일 1차 감리위원회 심의
		25일 2차 감리위원회 심의
		31일 3차 감리위원회 심의
	6월	7일 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12일 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20일 3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 요청
		29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공시
	7월	4일 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감원 수정안 제출 거부
		12일 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조치결정.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10월	19일 금감원, 증선위원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 보고
		31일 재감리 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11월	14일 재감리 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조치결정

또 현대차 압박나선 엘리엇

"초과자본 환원, 자사주 매입" 요구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초과자본금의 주주 환원 등을 요구하며 또 다시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나섰다. 올해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을 건 뒤 벌써 세 번째다. 〈관련기사 8면〉

엘리엇의 이 같은 갑작스런 요구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주주들을 설득해 공격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13일 현대차그룹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대차그룹은 심각한 초과 자본 상태"라며 "초과자본금을 환원하고 자사주(자기회사 주식) 매입을 우선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요 계열사들에 독립적인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엘리엇은 글로벌 자동차 컨설팅사 콘웨이 멕켄지의 '독립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초과자본 상태로 현대차는 8조~10조원, 현대모비스는 4조~6조원에 달하는 초과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결국 현대차그룹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초과자본금의 주주환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엇의 요구는 앞서 두 차례의 서신과 비교해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한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초과 자본 상태에 의미를 두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한다" 며 "자본이 늘어난다고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건 성장동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엘리엇은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처음 현대차그룹에 서신을 발송할 당시 현대차그룹의 분할합병 주주총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엘리엇의 반대의사 표명 뒤 현대차그룹은 5월 말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 인적분할과 글로비스와의 합병 주총을 취소했다.

두번째 서신에서는 현대차와 모비스의 합병 요구 대신 모비스의 A/S부문을 떼내서 현대차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신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을 꺼냈다. 엘리엇은 또 주주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현대차그룹에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 번째 서신은 더욱 과감해졌다. '초과자본금 환원'과 '저평가된 가치를 고려한 자사주매입 방안 우선 검토' 등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투자수익을 보전해 달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엇이 행동에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수능… 전국 1190곳서 59만여명 응시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증편
돌방상황 대비 수송대책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에는 전년보다 1397명 증가한 59만 4924명이 도전한다. 수능 한파는 없지만 서울의 경우 4~15도로 일교차가 심하고, 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보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시험에 지원하고도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결시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상승 추세다. 결시율에 따라 수능 상대평가 과목 성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결시율은 10.5%였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전날(14일) 받은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 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는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졌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으로 늘린다. 이시간대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는 늘어난다.

교육부는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을 세우고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hys@

SAMSUNG 두뇌 vs LG 심장… 미래車 시장 '한판승부'

삼성전자 '엑시노스오토'
자율주행 필수… 시장 경쟁자 없어

LG전자 '모터·배터리'
美 GM 쉐보레 볼트EV 부품 공급

삼성전자 디지털 콕핏. /삼성전자

LG전자는 쉐보레 볼트EV에 모터와 배터리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11개 부품을 공급했다. /쉐보레

삼성과 LG가 자동차 전장 사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 구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력을 앞세워 미래차 두뇌를 빠르게 장악하는 가운데, LG는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두뇌'는 삼성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17년 340억달러에서 2022년 553억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자동차가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는 데다, 2020년께 자율주행차도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1대당 탑재되는 반도체가 2000개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들어 차량용 반도체 라인업을 완비하면서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지난 4월 출시한 차량용 16Gb D램이 시발점이다. 1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LPDDR4X D램으로, -40℃(도)에서 12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오토그레이드1' 제품이다. 속도도 14%, 소비 전력 효율도 30% 높였다.

지난달에는 AP 라인업인 '엑시노스 오토'도 공개했다. AP는 연산처리장치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엑시노스의 처리 능력을 이어받으면서도, 내구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아직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시노스 오토와 함께 소개된 아이소셀 오토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다. 자율주행차가 주변을 인식하게 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셀 간 간섭을 최소화해 작은 픽셀로도 고품질 이미지를 구현하는 '아이소셀' 기술을 탑재했다.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은 소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소셀 오토는 삼성전자가 소니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미래 무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장'은 LG

LG는 미래차 시장에서 심장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에 필수적인 모터와 배터리 부문에서다.

모터는 LG전자가 자랑하는 전장사업 분야 중 하나다. 전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원천기술 보유사다. 인버터와 더블드라이브 등 신기술도 다수 보유 중이다. 세탁기와 청소기 등 가전을 통해 인정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배터리팩도 LG전자 주력 제품 중 하나다. LG화학이 만든 배터리를 완제품 형태로 납품한다. LG화학이 높은 배터리 생산 기술을 보유한 만큼, 자동차 업계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LG전자는 이를 활용해 미국 GM이 만든 첫 2세대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EV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미국 미시건주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지난 4월에는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인수하면서 전장사업 확대를 시사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볼트EV에 이어 최근 공개된 제네시스 G90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면서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도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LG디스플레이가 큰 역할을 맡았다.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6분기 연속 자동차용 5인치 이상 LCD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열린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서는 플라스틱 OLED를 활용한 미래형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쟁 이제부터

단, LG전자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독점하는 상황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글로벌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바 있다.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의 미래차 인포테인먼트 공략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모델이다. 올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18'에서 공개된 것으로, 대시보드 전면에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스마트싱스로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SDI는 8월까지 배터리 출하량이 1321MWh로 LG화학(2749MWh)에 크게 뒤쳐져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와 협업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양사는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 초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 라인' 플랫폼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차와 KT와 협력해 만든 첫 5G 자율주행차를 공개했다.

LG는 AI 연구와 더불어 자율주행 상용화에도 힘쓰고 있다. 로보티즈와 자율주행 모듈 개발을 계약하고, 이마트에 자율주행 카트를 공급했다. LG이노텍이 12일 국내 최초로 LTE 기반 차량용 통신모듈 C-V2X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힘을 합치기도 한다. 자율주행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다. 양사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출범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에 동참해 2021년까지 국제표준 20건을 제안하는 노력을 들일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은행권, 3450억 출연… 스타트업에 투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8450억 규모
3년간 일자리 1만1000개 창출 예상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출연금 3450억원의 스타트업 투자로 향후 3년간 1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4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345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결정해 재단 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8450억원으로 확대됐다.

디캠프는 은행권창업재단의 사무국으로 스타트업 지원 실무를 맡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추가로 받은 출연금 중 3200억원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성장사다리펀드'에 3년간 출자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나머지 250억원은 디캠프를 통해 3년간 직접 집행한다.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입주 공간 지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활용한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성장사다리펀드로 1만80명, 직접 집행으로 961명 등 모두 이번 추가 출연금 투자로 1만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이 디캠프 입주사와 투자를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캠프는 2015년부터 3년간 194억원을 집행해 739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1인당 고용창출 비용은 2600만원이었다.

김홍일 상임이사는 "부수적인 연관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만1000명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고용지표 악화, 단기개선 쉽지않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중장기적 재정역할에 최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나빠지는 고용지표가 단기간 내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2% 후반의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고용과 성장의 구성요소 간 조화라든지 경제주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다른 문제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한국거래소-BNK금융, 中企 육성 지원

지역기업 육성·상장지원 등 MOU
성장단계별 금융·투자유치 도와

한국거래소와 BNK금융그룹은 1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자본시장 상장 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BNK금융은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단계별 금융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돕는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기업별 컨설팅과 자본시장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015년 5개사, 2016년 4개사, 지난해 8개사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 상장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지역의 혁신기업이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ICT 수출액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

과기정통부, 전년比 12.3% 올라
수출액 절반 이상 '반도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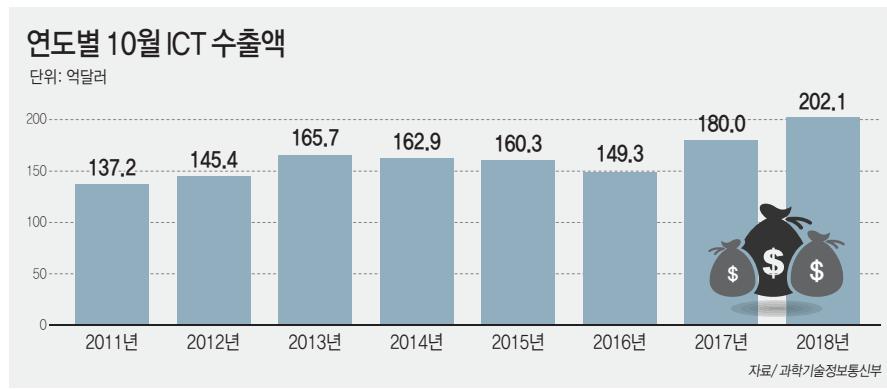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3달 연속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메모리가 효자종목이었으며 디스플레이는 다소 주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기준 ICT 수출액이 202억1000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지는 101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다. 10월 전년 동월대비 수출 증가율은 12.3%로 다시 두자리수를 되찾았다.

8월에는 15.4%였다가 9월 들어 5.3%로 주저앉았었다.

효자종목은 단연 반도체였다. 117억1000만달러를 수출하면서 전체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대비 21.5% 늘었다. 6개월 연속 100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연간 누적 1000억달러 돌파에도 성공했다. 이중 D램이 42억6000만달러 수출됐다.



/김재웅 기자

상폐 가능성 낮지만… 신뢰추락 등 바이오 대장주 눈물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증선위 결정, 향후 영업활동에 타격
거래소 상폐 실질심사 15일간 진행
제약·바이오업계 전반 불똥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몰고 올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 주식은 곧바로 상장폐지 심판대에 올랐다. 삼성바이오가 선진국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삼성바이오의 향후 영업활동에 미칠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상장폐지 실질심사 들어간 삼바

증선위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삼성바이오 종가는 전일보다 6.7% 오른 33만4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15일(영업일 기준) 진행한다.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여기에서 상장폐지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소집 후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최소 42 영업일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속성' 여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밝혀지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산업은행이 금융지원 등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 '회사 경영 지속성' 평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망산업인 바이오 기업인데다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여러 부문을 고려해봤을 때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사 주식은 국내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로 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에 달한다.

◆토종 바이오 대표주자의 몰락

이번 판결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실이다.

삼성바이오의 수출 비중은 70%가 넘는다. 해외 수주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의 사업구조상 이번 결론이 삼성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삼성바이오의 주요 고객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제약사들이 기업 윤리기준을 엄격히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에피스도 마찬가지다. 삼성에피스는 올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베네팔리와 플락사비를 앞세워 유럽에서만 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판매고를 올렸다. 처방받은 환자만 10만명이 넘는다. 삼성에피스는 지난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임랄디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출시해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허셉틴(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윤리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증선위 조치가 향후 삼성에피스 행보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제약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표주자의 몰락"이라며 "한국 제약, 바이오업체들이 기술수출이나 제휴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도 예고됐다.

이날,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경·손엄지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바 논란에도 바이오주 상승세… 삼성그룹주는 약세

회계 논란 종지부, 긍정적 시그널로
삼바 거래 재개 땐 업종 분위기 개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도 바이오주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삼성그룹주는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6.70%(2만1000원) 오른 33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선위의 발표 이전에 끝난 주식시장에선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바이오주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셀트리온(3.74%)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3.30%), 신라젠(2.07%), 코오롱 티슈진(0.54%), 셀트리온제약(2.20%) 등이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바이오업종 연구원은 "증선위의 결론과 상관없이 바이오주 회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이오주 전반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장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이후 업종 전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0.90% 하락한 4만41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삼성물산(-0.47%), 삼성생명(-0.86%), 삼성에스디에스(-2.14%), 삼성화재(-0.35%) 등이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바이오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 경영승계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삼성그룹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또 삼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도 상당부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그룹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사업별 성과에 따라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일자리 창출은 후퇴

일자리 정책에도 채용 상승세 멈춰
장애인 등 소외 인력 특수채용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증하던 신규 채용은 올 들어 상승세가 멈췄다.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수채용은 오히려 절반 가량 줄어 들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8곳의 신규 정규직 채용인원은 총 19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채용인원(2296명)보다는 336명 적은 수준이다. 4분기 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인원에는 단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인원까지 포함돼 있어 단위가 소수점까지 변환됐다. 이들 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배 수준으로 늘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공약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 철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출범 직후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모양새였다. 이들 기업은 2016년 1248.5명 신규 채용에서 2017년 2296.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다가 올해는 오히려 신규채용 인원을 줄이는 등 일자리 창출에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16.5명에서 올해 40명 채용으로 3분의 1 가량 신규 채용 인원을 줄였다. 같은 기간 한국공항공사의 신규 채용 인원은 198명에서 107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6.25명에서 6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31명에서 269명으로 감소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신규 채용 인원을 두 배 가량 줄였기 때문에 연간 합산으로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 인력에 대한 특수채용도 턱없이 부족했다.

2018년 3분기까지 공기업 8곳의 장애인 신규 채용 인력은 43.5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2%에 불과하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 채용 1126명 중 1명 만이 장애인 채용이어서 비율이 0.001%에 그친다. 이 기업은 지난해만 해도 장애인 채용 인원이 11명이었다가 올해는 아직까지 한 명 채용에 그쳤다.

한국감정원도 50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1명만이 장애인으로 전체 2% 수준이다. 감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채용이 '제로(0)'였다. LH도 269명 채용에 장애인은 8명(3%) 뿐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채용은 더 가뭄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의 시간선택제 채용 인원은 총 7명으로 전체 신규 직원의 0.4%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 채용 인원은 지난 2014년 59명, 2015년 51명, 2016년 17명, 2017년 17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LH는 2014년부터,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이 한 건도 없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최근 2~3년 내 시간선택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도 모두 올해 3분기까지 시간 선택제 채용이 제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지난해 1명 채용에서 올해 7명으로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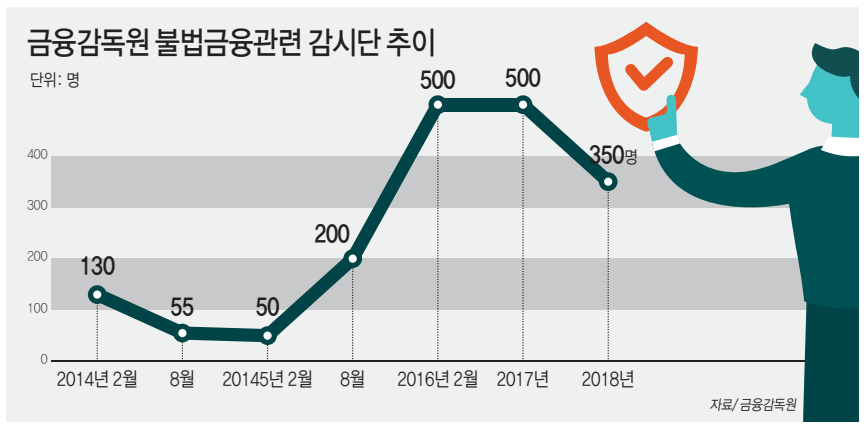
/채신화 기자 csh9101@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신규채용(정규직) 인원 추이〉 /자료=알리오

기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3Q
도로공사	신규채용	166.5	176	182	188	259
	시간선택제	2	0	0	0	0
	장애인	7	2	3	2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채용	18.5	16.75	15	36.75	46.25
	시간선택제	1	1	0	1	7
	장애인	0.5	0.75	0	0.75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채용	109.625	67.75	78.75	116.25	63
	시간선택제	6	5	5	7	0
	장애인	4	4	3	1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규채용	53	96	7.5	116.5	40
	시간선택제	6	6	1	5	0
	장애인	28.5	44	2.5	45.5	14
한국감정원	신규채용	45	51	45	50	50
	시간선택제	4	4	4	4	0
	장애인	0	0	0	0	1
한국공항공사	신규채용	156.75	80.25	176.25	198	107
	시간선택제	10	3	7	0	0
	장애인	4	2.75	11	9	2
한국철도공사	신규채용	505	319	604	1,060	1,126
	시간선택제	30	32	0	0	0
	장애인	6	2	11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채용	5	10	140	531	269
	시간선택제	0	0	0	0	0
	장애인	0	0	4	13	8
계	신규채용	1059.375	816.75	1248.5	2296.5	1960.25
	시간선택제	59	51	17	17	7
	장애인	50	55.5	34.5	82.25	43.5

온라인 불법대출 급증에도 금감원 감시단 줄었다

금감원, 감시단 인력 축소 논란
올 온라인 감시단 절반으로 '뚝'
감시단 추가 모집공고 올 1건 뿐
"손놓은 인력 배정, 피해 키워"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행위 관련 감시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금감원은 '서민들의 금융피해 원천차단'을 위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을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인력배정에 손을 놓으면서 외려 온라인 불법대출광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국적 사회감시망으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지난해에 비해 15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금감원은 감시단을 온라인 300명, 오프라인 200명으로 계획했지만 온라인 150명, 오프라인 200명으로 온라인감시단이 당초 계획의 절반수준에 그친 것이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작된 시민감시단은 시민들의 금융피해 척결을 위해 2016년 5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 초에는 온라인 불법대출이 증가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인원을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온라인 감시단으로 배정돼야 할 300명 가운데 절반이 줄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국 각지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운영했다. 지난 2016년 금감원은 감시단 인력을 확대해 전체 제보건수가 과거(9만9331건)보다 7만7751건(7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원의 제보유형은 대체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대출광고 관련 제보로 전체의 대부분(98.0%)를 차지한다. 감시단만 잘 운영하더라도 불법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불법대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직원은 전체 총 5명으로 오프라인 불법대출 광고 3명, 온라인불법대출광고 2명이다"며 "팀원 외에도 오프라인 200명, 온라인감시단은 300명 중 150명 정도가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시단을 추가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낸 상태"라고 덧붙었다. 그러나 홈페이지 확인결과 감시단을 모집한 공고는 올해 1월에 낸 공고 1건이었다.

문제는 불법대출광고의 전통적 수단인 전단지·전화를 넘어 단속 사각지대인 온라인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대부광고 심의 건수는 1만 15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55건이던 심의건수가 올해 9월 기준 4569건에 달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대출광고가 최근 청소년과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상의 불법대출 광고는 청년, 청소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 실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8년 연속 '최우수 외국환은행' 수상

KEB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박찬범 KEB하나은행 런던지점장(오른쪽)이 글로벌파이낸스지의 리처드 숄츠(Richard Scholtz) 총괄 상무이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1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세계적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2019 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135개국 해외 은행들과 환거래를 체결,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한국 내 부동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며 "외국환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독보적인 서비스 품질과 기술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2001년 이래 18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KEB하나은행 FI사업부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의 역량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과 개인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동시에 석권하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로 또한 공인 받은 바 있다. /김문호 기자 kmh@

NH농협은행 '비대면 전용' 외환상품 2종

적립예금·환전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외화적금인 '올원외화포켓적립예금'과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외화환전이 가능한 '너도나도 환전' 등 비대면 전용 외환 상품과 서비스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원외화포켓적립예금은 환테크와 해외여행자금 마련 등을 위한 외화적금이다. 가입가능 통화는 미달러(USD), 일본엔(JPY), 유로(EUR), 중국위안화(CNY) 4종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이다.

올원뱅크 앱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창구에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올원뱅크 앱에서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USD·JPY·EUR은 70%, CNY는 40%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특히 USD는 내년 6월까지 90% 우대환율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너도나도 환전'은 고객이 올원뱅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해 생성된 가상계좌에 30분 내에 입금하고, 고객이 원하는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외화실물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농협은행 계좌가 없거나 올원뱅크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환전가능통화는 USD·JPY·EUR·CNY 등 4종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유럽시장 공들이는 정의선, 커넥티드카·수소차로 공략

〈현대車그룹 수석부회장〉

유럽 연간 판매 100만대 돌파 눈앞
블루링크 서비스, 전역 확대 계획
프랑스 기업과 수소전기차 협업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체코와 영국 등 유럽 현지 생산 판매 현황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엔 현지 기업과 손잡고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유럽 시장 공략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직접 유럽을 찾아 현지 공장을 둘러보고 영국 등 현지 시장을 돌며 시장 상황을 분석했다.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9월 미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와 미국의 관세 폭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한 유럽 시장에 기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유럽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유럽 진출 이후 41년 만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8월 유럽 시장 누적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71만505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9.8% 증가한 37만8834대를, 기아차가 5.9% 늘어난 33만6216대를 각각 팔았다. 현재 추세로라면 올해 100만대 이상은 무난히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회장은 유럽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지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유럽 최대 통신업체인 보다폰과 손잡고 내년 초부터 유럽 시장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와 보다폰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뉴버리에 위치한 보다폰 본사에서 김지윤 현대·기아차 아이시티(ICT)기술사업부장과 엔 엔 탠 보다폰 엔터프라이즈 사장, 스테파노 가스토 보다폰 사물인터넷(IoT)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커넥티드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내년 초 출시되는 신차부터 자사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유보(UVO)'를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차도 내년 중 '블루링크(BlueLink)'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 8개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수년 안에 32개국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초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럽은 한국·미국·캐나다·중국에 이어 현대·기아차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섯 번째 지역이 된다.

또 현대차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수소전기차 카드도 꺼내들었다. 현대차는 최근 프랑스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과 손잡고 수소전기차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현재 세계적 산업용 가스회사 에어리퀴드 및 다국적 에너지기업 엔지 등과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MOU에 따라 3사는 프랑스에서 수소전기차와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협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가진 현대차는 최근 '넥쏘'를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25년까지 프랑스에 승용차 뿐 아니라 버스·트럭 등 총 500대의 수소전기차를 공급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7배 빠른 엑시노스 9 공개

그래픽 처리 40% ↑ ·전력소모 35% ↓

삼성전자는 14일 신형 모바일 AP 엑시노스9(9820·사진)을 공개했다. 연내 양산할 예정이다.

엑시노스9은 인공지능(AI) 연산을 기존 제품보다 7배 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영상과 음성 인식 등에 활용되는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했다.

그래픽 처리 성능도 40% 향상됐다. 그래픽 프로세서(MALI-G76)을 통해서다. 전력소모도 35% 가량 개선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4세대 CPU 코어를 적용하면서 성능과 전력 효율도 제고했다. 옥타코어 CPU 구성을 최적화해 멀티코어 성능도 15% 향상했다.

모뎀은 1초당 2Gbps 다운로드에 316Mbps 업로드가 가능하다. 업계 최초로 주파수를 엮어 사용하는 8CA 기능도 탑재했다.

통신모드는 2G에서 4G까지 6개를 지원한다.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다.

허국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마케팅팀장 상무는 "AI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AP에도 향상된 연산 능력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며 "엑시노스 9(9820)은 NPU, 고성능 4세대 코어, 2기가비트급 모뎀, 강화된 멀티미디어 성능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빅스비 개발자 데이', 국내서도 챙긴다

삼성전자, 비지니스 연동사례 소개
뉴 빅스비·캡슐, 개발자 참여 늘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개발자 행사를 정례화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 빅스비 개발자 데이'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빅스비를 비즈니스에 연동하는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SDC 2018)'에서 빅스비 소프트웨어 개발툴을 발표한 연장선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정의석 부사장과 이지수 상무, 비브랩스 아담 샤이어 최고책임자가 기조연설을 맡기로 했다. 레리 헥 삼성전자 북미 AI센터장도 강연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개발자 데이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일찌감치 마감됐다.
/삼성전자 빅스비 개발자데이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가 빅스비 관련 개발자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국내 개발자 행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DC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발자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삼성전자 플랫폼 내 외부 개발자 참여가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 개발자 기반이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개발자 참여를 늘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 '뉴 빅스비'와 '빅스비 캡슐'은 외부 개발자들이 빅스비 개발에 쉽게 참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내년 출시할 새로운 '갤럭시 스토어'도 개발자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재웅기자 juk@

KT, 'CUPS' 적용 5G 코어장비 구축

KT가 CUPS 기술을 적용한 5G NSA 코어 장비를 개발해 상용망에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 시스코와 함께다.

CUPS 기술은 3GPP 국제 표준에서 정의하는 기술이다. 신호와 트래픽 처리 담당 장치를 분리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표준이다.

CUPS 기술을 적용한 5G NSA 코어 장비는 '에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신호처리와 사용자 트래픽 처리를 분리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과 AR, VR 등 고품질 초저지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필수다.

또 KT는 코어 장비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5G SA(단독모드) 규격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했다. 추후 5G 표준화를 대비한 조치다.

앞서 KT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CUPS 구조 코어망을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이후 삼성전자와 시스코 등과 설계단계부터 협업했다.

이수길 KT 네트워크연구기술지원단장 상무는 "KT는 CUPS 기술 적용으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초저지연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된 5G NSA장비는 향후 SA 서비스까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KT는 국내최초로 5G NSA 코어 장비를 상용망에 구축했다.
/KT

LG전자 글로벌 마케터들이 국내 대형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LG전자

LG전자, 글로벌 마케터와 노하우 공유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즈' 개최

LG전자 글로벌 마케터들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LG전자는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7번째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어워즈 2018'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해외 판매법인들이 한데 모여 브랜드와 온라인, 영업 관련 분야 마케팅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32개 판매법인 마케팅 담당자가 참석했다.

전력난에 소비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을 추천한 이라크 레반트 법인,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국에서 오디오인 '엑스붐 가라오케 페스티벌'을 진행한 인도법인 등 사례가 공유됐다.

앞서 글로벌 마케터들은 전날인 13일 LG사이언스파크를 둘러보고 서울 시내 대형쇼핑몰 가전매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 상황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SK이노,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 수주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OEM 중 하나인 폭스바겐과 미국 및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 가격 등 세부 사항은 폭스바겐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SK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주 물량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과 유럽 공장에서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에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최종 후보지 3~4곳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도 헝가리를 포함한 신규 공장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미국 및 유럽의 신설 공장 생산 규모 및 이에 따른 총 투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폭스바겐 공급물량 변동 및 추가 수주를 염두에 두고 증설 계획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수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뛰어난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과 안정적 공급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글로벌 영토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LNG선 잇단 발주에 국내 조선업, 글로벌 성장 청신호

4분기부터 매출 성장 회복세
수주 잔고 많아 내년도 기대

IMO 황산화물 규제 앞두고
LNG 운반선 수주 증가할 듯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해운시장 회복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증가로 향후 성장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들의 2018년 수주 목표는 320억 달러이며 수주 달성률은 240억 달러인 75%에 달한다. 현재 수주 잔고가 많아 경기변화에 무관하게 오는 2019년에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2023년이면 지난 2007년 호황기때 만들어진 선박들의 선령이 15년을 넘어가 교체주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도 조선업계 성장에 크게 한 몫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친 환경선박 신조선 발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중연료엔진, LNG추진엔진, 소형 LNG 운반기술, 스크러버 등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이 95%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LNG 운반선 시장은 글로벌 경제에 덜 민감하지만 글로벌 환경 정책에는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선박가격 상승도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최저점을 찍은 선가는 2017년부터 회복하며 향후 현재 선가의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조선가지수는 120포인트로 현재 130포인트까지 올랐으며 오는 2019년에는 135~14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은 내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는 중국 조선업계와 달리 자국 경제지표 둔화에 대한 내성을 지니게 만들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데 성공하며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고 있다. 중국 조선업체의 수주는 중국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급감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6년 수주절벽 이후 조선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선업체들은 3년도 되지 않은 시간동안 20만명의 근로자를 10만명으로 줄였다.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들도 연평균 6%씩 임금을 삭감 당했다. 근로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이 되었지만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다. 40% 이상 감축된 고정비와 연평균 2% 절감된 원가율은 최근 높아진 후판 가격을 상쇄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4년 만에 5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국제유가(WTI)가 배럴 당 60달러를 넘어가면서 생겨난 변화로 풀이된다. 해양플랜트 1기가 LNG선 10척보다 수주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의 수주 재개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생산규모 회복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한진重, 해군 차기고속정 4척 수주

영도조선소-방위사업청
2741억 규모 함정건조계약

해군 차기고속정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차기고속정 4척을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의 차기고속정(PKX-B) 9번함부터 12번함까지 4척을 총 2741억원에 수주하고 13일 함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차기고속정 1번함에서 12번함까지 총 12척, 8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모두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 선도함 건조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후속함 3척을, 지난 해 다시 4척을 추가로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다.

차기고속정 사업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당시 제1, 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한 200톤급 고속정 건조사업이다. 130㎜ 유도로켓, 76㎜함포, K-6 원격사격 통제체계, 한국형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기존 고속정 대비 화력, 명중률, 생존성 등 전투력을 강화했고 기동성능과 탐지, 방어능력까지 대폭 향상된 차세대 전투함정으로 꼽힌다.

해군은 차기고속정을 향후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과 함께 전방함대에 배치해 최전방을 사수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CCTV 속 사람 찾아주는 AI 서비스 론칭

SK㈜ C&C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
공공기관 등 한정해 제공

SK(주) C&C가 자사의 인공지능 얼굴 인식 솔루션(FRS)을 빌려 쓸 수 있는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14일 론칭했다. /SK(주) C&C

SK㈜ C&C가 자사의 인공지능 얼굴 인식 솔루션(FRS)을 빌려 쓸 수 있는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14일 론칭했다.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는 웹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연동은 물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필요 없다.

CCTV만 있다면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에 접속해 CCTV 속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등록 후 CCTV 영상 파일만 업로드 하면 수 분내 영상 속에서 사람을 찾아 주고 시간별 동선도 알려 준다.

사진 속 얼굴을 3D모델로 변환,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가상으로 생성해 고개를 숙이는 등 얼굴 정면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얼굴을 정확히 인식해 낸다.

서비스 대상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으로 한정했다. 사용료는 월 80만~100만원이며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K㈜ C&C의 인공지능 에이브릴 포털에 접속해 법인 회원 가입 후 솔루션 메뉴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면 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유플러스, IPTV서 넷플릭스 서비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체결
'U+tv'서 내일부터 콘텐츠 제공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콘텐츠 독점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손 잡고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들은 안방에서 인터넷TV(IPTV)를 통해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인 'U+tv'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16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달 중 U+tv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개편해 내달 중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개국, 1억 3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우리나라에는 2016년 진출해 영화 '옥자',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 '유병재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페셜', 'YG전자' 등 국내 자체제작 오리지널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IPTV 부문 단독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국내 IPTV중에서는 LG유플러스에서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U+tv 이용 고객들은 국내 자체제작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기묘한 이야기',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등 오리지널 시리즈와 해외 콘텐츠인 미드, 영드 일드,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IPTV 대형 화면에서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UHD2 셋톱 이용고객 107만명을 대상으로 넷플릭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T, 명동 일대 '세계 5G 1번지'로 조성

5G상용망 기지국 구축현장 공개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공개했다. 명동 일대를 '세계 5G 1번지'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텔레콤은 14일 서울 명동에 설치한 5G 상용망 기지국을 소개했다. 다음달 1일 세계 최초 5G 전파 송출을 15일여 앞둔 행사다.

이날 공개된 기지국은 SK텔레콤이 설치한 전국 5G 기지국 중 최초로 조성한 곳 중 하나다.

높이는 약 1m, 폭은 23㎝다. LTE 기지국(최소 10㎡)보다 훨씬 작다. 5G 기지국은 LTE보다 2~3배 많이 필요한 만큼, 전혀 새로운 형태로 구현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무게도 24㎏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기능은 더 높였다. 안테나는 LTE 기지국(4개)보다 8배나 늘어난 32개가 들어간다. 전파를 특정 위치로 집중하는 '빔포밍'과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해 전파를 쏘는 '빔트래킹', 그리고 다수에 데이터를 동시 전달하는 '다중 사용자 MIMO' 등이 추가됐다.

SK텔레콤은 종로에 설치한 5G 상용망을 공개했다. /SK텔레콤

SK텔레콤 '5G AI 네트워크'는 이 기술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유동인구를 사전 예측하고 상황에 맞게 통신 품질을 자동 최적화하는 등이다. 트래픽 변동을 감지해 기지국 안테나 방향과 전파 송출 구역도 스스로 조정한다.

명령은 서울 성수국사에 있는 '중앙 유닛'이 내린다. 현장 기지국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 기지국 전체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건물 내부 품질을 높이는 기술도 소개됐다. '5G 인빌딩 토털 솔루션'이다. 건물 내부 중계 장비 데이터 트래픽 처리 용량을 LTE 대비 최대 16배 늘려준다. 건물 내부에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경계 구간도 최소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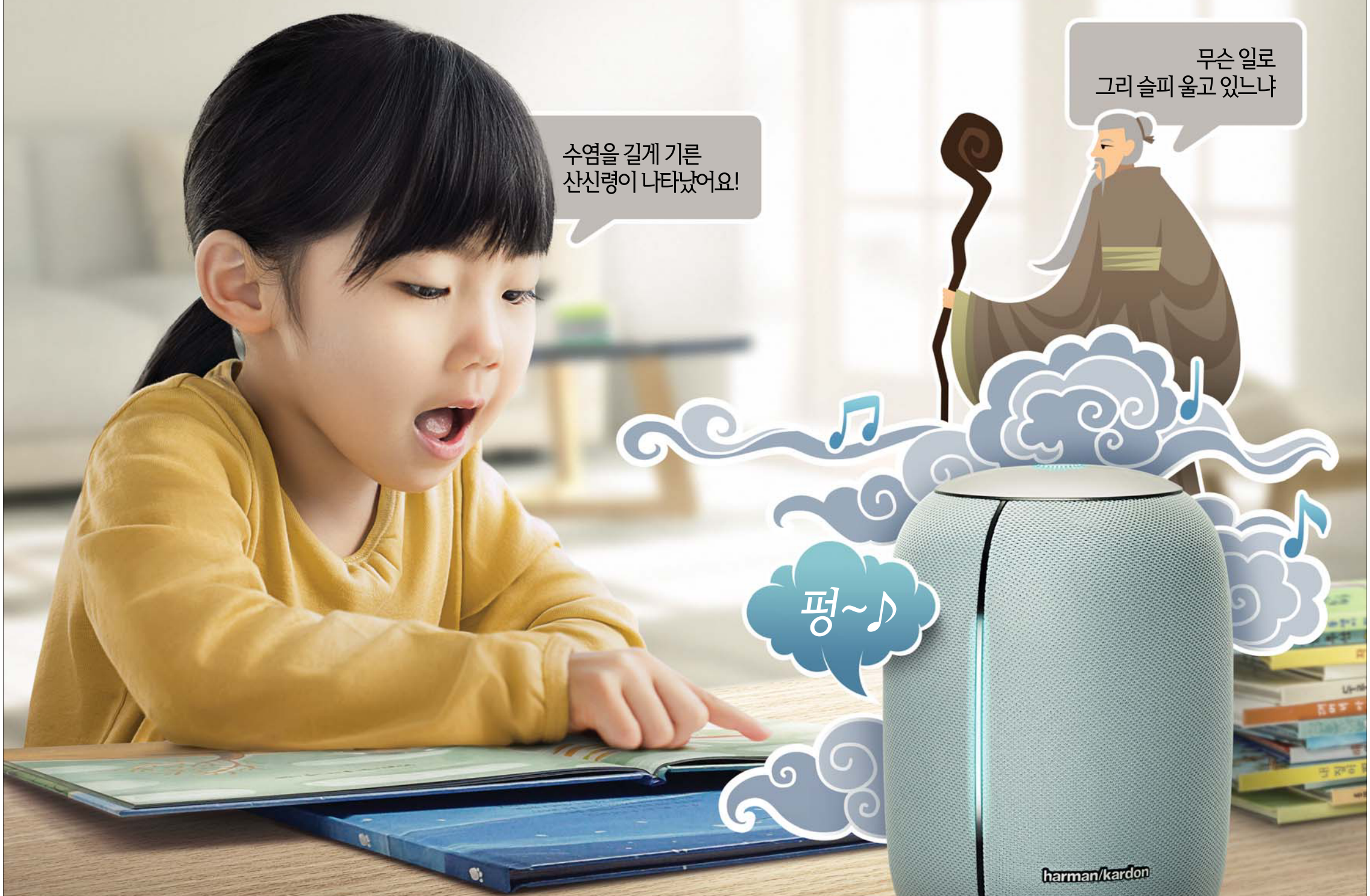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명동 일대를 '세계 5G 1번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명동은 유동인구가 많아 최적화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5G망 구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ICT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네트워크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KT 키즈랜드 기가지니 소리동화]

책 속에 숨어있던 소리들까지 기가지니가 들려줄게요

책 읽는 소리에 맞춰 생생한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더해주는 KT 키즈랜드 기가지니 소리동화
이제 6개 출판사 150 여개 콘텐츠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키워주세요



KT 키즈랜드 기가지니 소리동화란?
책을 읽으면 기가지니가 읽고 있는 문장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생생한 효과음과 주인공 대사를 들려주는 동화 구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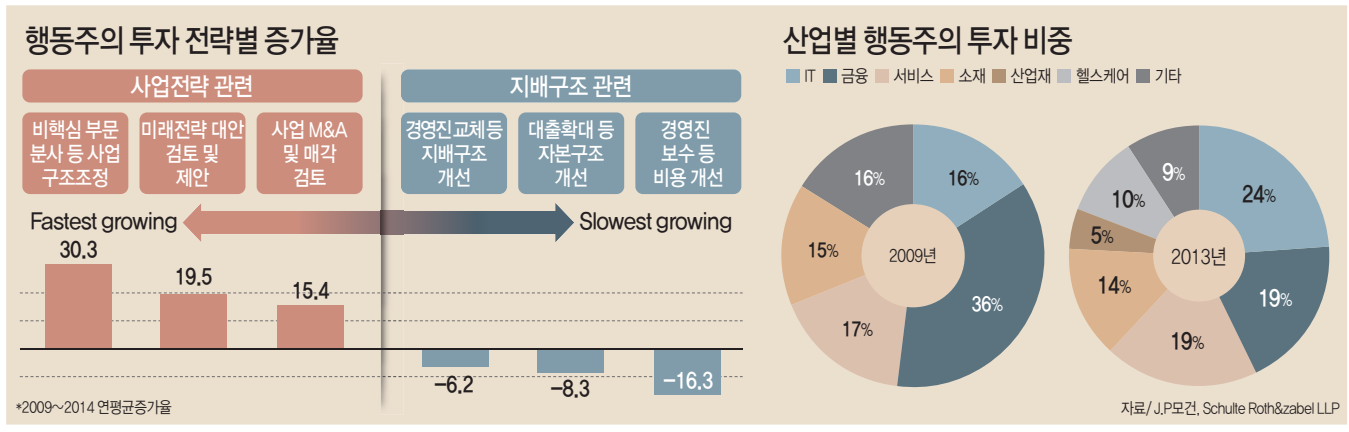
매일 읽어도 질리지 않는 풍부한 콘텐츠
6개 출판사의 150여개 콘텐츠로 한층 더 풍성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우스 글뿌리 대교 스마일북스 아람 이퓨쳐

PEOPLE. TECHNOLOGY. kt

“엘리엇, 눈 앞 이익보다 미래투자 요구해야”

초과자본 13조 주주환원 주장에
현대차, ‘지배구조 변화’ 준비
“환원 당연하지만 투자 늘려야 할 때”



특히 G2(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주요 신흥국 통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8년 만에 최악의 성적(3분기 영업이익 2889억원, 전년 대비 76% 감소)을 내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기술개발과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에 무리한 주주환원책을 요구한 것은 주주 행동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려면 외부주주가 배당과 같은 눈앞의 이익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 사업 재편 등 진정한 ‘주주행동주의자(Shareholder activist)’가 돼야 하다는 얘기다.

◆ 딴지걸기, 경제적 비용만 초래할 뿐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이번에 엘리엇이 전달한 서한의 내용은 새롭지 않다”며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의 과도한 보유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기존 주장을 독립적 컨설팅 업체 분석을 통해 다시 한 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이사진에 보낸 서신에서 컨설팅사 콘웨이 맥켄지의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그룹이 13조원 이상의 초과자본을 보유하며 자사주매입 등을 통한 주주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지배구조 변경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주주들을 설득함으로써 향후 있을 수 있는 주총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그룹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변화를 준비할 것”이라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현대차(46.4%), 현대모비스(48.1%) 등의 주총을 최소화하고 주주구성이 유리한 현대글로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변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갈 길 바쁜 현대차그룹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처지다.

실제 지난 2015년 6월은 엘리엇이 국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7.12%)을 보유했다고 공개한다. 삼성이 추진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발목을 잡기 위해서다. 당시 삼성물산 직원들은 개인 주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임장을 받았고, 삼성물산 지분 10%를 가진 국민연금 등의 도움으로 표 대결에서 엘리엇에 승리했다. 하지만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은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다”면서 “위기때 교묘하게 약점을 파고든다. ‘벌처펀드’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배구조의 허점을 파고들 것이고, 소액주주들의 힘을 빌리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계 펀드인 소버린자산운용(SK),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칸(KT&G) 등 적잖은 외국계 자본들의 행태가 그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기관투자가의 주총을 바꾼다’란 보고서에서 “경영권과 관련한 제도들에 반기업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될 경우 자본시장 건전화보다는 약탈적 주주자본주의의 확산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 달라는 행동주의 그만, “미래에 투자해라” 할 때

행동주의 투자의 관점과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당연함과 관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부정하고 새로운 본질을 들여다보고 행동한다면 소액주주 하나하나의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제2의 스티브 잡스는 멀리 있지 않다”면서 “주식소각이나 배당은 눈앞의 이익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같은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이 투자를 통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보다 큰 수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환원은 당연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점점 치열해지는 극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개발을 통한 경 쟁력 확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책 보다는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이 보다 현명한 행동주의라 할 수 있다. 그 열매는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엇이 진정한 행동주의 투자일까. 사전적 의미에서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껏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했다. 엘리엇이 대표격이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강력한 사업구조조정과 투자제고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야한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관심은 밸류에이션(Valuation)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은 ‘기관투자가의 주총을 바꾼다’란 보고서에서 “기관투자가의 단기 현금흐름 선호 경향이 기업 경영의 단기 실적주의를 초래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이에 따라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헤지펀드의 약탈적 주주행동주의 제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업 경영의 교란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2단계 수익률 게임인 그린메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총 상금 2.1억 ‘투자대회’

KB증권은 ‘제4회 KB증권 투자왕 실전투자대회’가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실전투자대회는 KB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11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KB증권 홈페이지와 HTS, MTS 및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이 2억 1000만원 규모이며, 국내주식리그 1억·3000·100리그와 대학(원)생 리그 1백리그로 나뉘어 실시된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하이투자증권은 김경규 대표이사 취임 후 DGB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자산관리(WM) 영업조직과 전략조직의 분리를 통해 영업지원 강화 및 영업집중 추진 ▲단위조직 통합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금융상품법인담당의 본부 격상으로 전략적 금융상품법인영업 육성 ▲리스크담당의 본부 격상으로 영업본부와 균형 및 리스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손임지 기자

“코넥스 이전상장이 주식정보 비대칭 완화”

자본시장연구원
“코넥스, 가격·공시정보 존재
저평가 요구 상대적으로 적어”

#‘레몬(불량한 중고차)’.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먹기에는 맛이 쓴 과일이다. 반대로 관리가 잘돼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맛있는 과일인 ‘복숭아’라고 하자. 레몬의 가치는 1만원이고 복숭아의 가치는 2만원이다. 구매자는 두 자동차가 레몬인지 복숭아 인지 알지 못한다. 단지 중고차의 평균가치(1만5000원)만 알 뿐이다. 복숭아 판매자는 2만원 아래론 팔 의사가 없다. 반면 구매자는 평균가격인 1만5000원만 지불할 의사가 있어 복숭아 장사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된다. 결국 시장에서는 불량한 차인 레몬만 남게 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of) 버클리대 교수가 ‘마켓 포 레몬(Market for Lemon)’이란 논문에서 보여 준 정보비대칭 때 볼 수 있는 시장 실패의 얘기다.

주식시장에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늘 논란거리다. 특히 코스닥 신규 공모시장은 정보비대칭에 의한 레몬시장(lemon market)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량기업의 상장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코넥스시장을 경유한 이전상장이 레몬(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준석 연구원은 14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경로 비교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보비대칭의 관점에서 볼 때 코넥스 이전상장의 정보비대칭 수준은 정규상장이나 합병상장에 비해 낮다”면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서 주식의 시장가격과 공시정보가 존재하고 시장규율에 노출되어 있어, 저평가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신규 공모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공모가 저평가(IPO underpricing)를 들 수 있다. 공모가가 저평가되면 상장 이후 시장가격이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기업가치가 공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으로 간주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모가 저평가는 정보비대칭의 산물로 공모실패 가능성을 낮추거나 주관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공모가 수요예측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한 보상으로 저평가가 부분적으로 용인되면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코넥스를 경유한 이전상장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조달 규모를 보여주는 시가총액 대비 공모금액의 비율(%)은 정규상장이 20.4%로 가장 컸다. 이전상장과 합병상장은 각각 17.2%, 16.0%였다.

세가지 상장경로가 동시에 존재하는 2014년 이후로 기간을 제한하면 정규상장 18.4%, 이전상장 17.2%, 합병상장 12.9%였다. 정규상장과 이전상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합병상장의 자금조달 규모는 나머지 두 경로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다. 다만 합병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에는 SPAC 공모자금 이외에 SPAC의 전환사채 발행자금도 포함된다.

공모가 저평가 정도는 이전상장이 3.93%로 다른 상장경로 보다 작았다. 정규상장은 16.51%, 합병상장은 23.03%였다. /김문호 기자 kmh@

한화투자증권, 전국 곳곳서 사회공헌

창립 66주년 맞아 자율 공헌활동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한화 창립 66주년을 맞이해 임직원이 전국 각 지역에서 42개 그룹으로 나뉘어 자율적으로 사회공헌 활동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자원봉사의 날’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확대하여 임직원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전국 각 지역에서 임직원이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만큼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리서치센터는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에 방문하여 기부금 전달과 더불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트레이딩(Trading)본부는 본사 주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쌀 등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문호 기자

한화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영유아 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있다.

우유·과자 등 생활물가 '줄인상'… 서민물가 들썩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원인
음료·라면 값도 잇따라 오를 예정

과자부터 우유, 아이스크림까지 식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당분간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15일부터 스낵류 19개 브랜드의 출고가격을 평균 6.7% 인상한다. 출고가격 기준 새우깡 6.3%, 양파링, 꿀꽈배기, 자갈치, 조청유과 등 6.1%, 프레첼 7.4% 오른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2016년 7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라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원가압박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제과와 크라운해태제과도 가격 인상을 했다. 롯데제과는 지난 4월 빼빼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목캔디 제품 권장소비자가격도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올렸다. 해태제과는 지난 5월 오예스, 맛동산 등 5개 제품의 가격과 중량을 조정해 중량 당 가격을 평균 12.7% 인상했다.

서울우유 나100%(왼쪽)와 새우깡. /서울우유협동조합·농심

아이스크림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롯데제과는 아이스크림 월드콘과 설레임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각각 200원씩 올렸다. 해태제과도 아이스크림 부라보콘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편의점 납품가격인 1500원을 대리점과 동네슈퍼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우유와 생수, 음료 가격도 오르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8월 흰우유 가격을 3.6% 인상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10월 우유제품의 가격을 평균 4.5% 올렸다. '맛있는 우유 GT' 경우 200㎖는 33원, 500㎖는 50원이 인상됐고, 1L는 900㎖로 용량을 변경했다. 유업계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인건비 증가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롯데리아는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가격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렸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우유와 롯데GRS가 운영하는 크리스피크림도넛 가격도 올랐다.

농심은 지난 1월 생수 브랜드 백산수를 7.8% 인상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9월 삼다수 가격을 용기별로 6~10% 가량 올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내달부터 블랙보리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팔도는 이달부터 어린이음료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제품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며 인상했다.

매일유업, 빙그레, 롯데칠성음료도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가격도 오른다. 팔도는 다음 달부터 컵라면 왕뚜껑 소비자 가격을 기존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릴 계획이다. 비빔면도 4.7% 인상할 예정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누적된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격 인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두부·시리얼 가격 내리고, 햄·밀가루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한 지난달 판매가 조사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10월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월에 비해 두부·시리얼 등이 하락, 햄·밀가루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중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두부(-4.4%)·시리얼(-3.0%)·참치캔(-2.5%) 등 15개였다. 특히 두부는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지난달에 상승했던 시리얼은 10월 들어 다시 하락했다.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햄(5.4%)·밀가루(3.5%)·맛살(3.2%) 등 11개로 하락한 품목 수(15개) 보다 적었다. 맛살은 9월에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10월 들어 이전 가격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조사대상 30개 품목의 가격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2%~ 11.3%의 등락률을 보였고, 즉석밥·어묵·설탕·오렌지주스·우유 등 19개 품목이 상승했다. 곡물가공품, 조미료류, 음료류, 주류 등이 상승했으며, 곡물가공품은 즉석밥(11.3%)·국수(3.6%) 등이, 조미료류는 설탕(8.9%)·참기름(3.6%) 등이, 음료류는 오렌지주스(8.2%)·콜라(4.1%) 등이, 주류는 맥주(1.4%)·소주(1.1%)가 상승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품목은 7개였으며 냉동만두(-13.2%)·고추장(-3.4%)·식용유(-3.3%) 등이었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의 총 구입비용은 대형마트가 평균 11만582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전통시장(11만8565원), SSM(12만3615원), 백화점(13만3081원) 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13.0%, SSM보다 6.3%, 전통시장보다 2.3% 저렴했다. 백화점(-0.5%)·대형마트(-0.3%)·전통시장(-0.2%)의 경우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SSM(1.1%)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생필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참가격' 사이트에서 판매가격, 할인정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박인웅 기자

기업 '오프쇼어링', 고용창출 기여 효과

한은 BOK 경제연구소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 보고서

기업들의 생산시설 국외 이전을 뜻하는 '오프쇼어링'이 국내 노동수요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생산 비용 절감으로 오히려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에 게재된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 보고서(한은 경제연구원 음지현·최문정 부연구위원·박진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을 축소시켜 노동수요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와 해외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해 2006~2014년 중 제조업 기업의 수출입액 및 수출입 집중도가 상용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률추정법(GMM)으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성 및 해외 현지 생산(오프쇼어링)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는 노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산성(1인당 매출액 및 혁신 지수 기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수요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입 증가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활용할 경우 수출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창출 효과와 수입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감축 효과 모두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오프쇼어링의 직접효과로 인해 수출의 노동수요 창출효과는 축소되는 반면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오프쇼어링의 간접효과는 수입의 노동수요 감축 효과를 완화했다.

보고서는 "수출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주로 발생하고 오프쇼어링은 해외 현지 생산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무인환전센터' 오픈

KB국민은행

ATM기기로 4개국 통화 환전 가능

KB국민은행 14일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사 내에 4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무인환전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김정국 공항철도 부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인환전센터는 지난 1일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KB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포식' 이후 처음 시행되는 디지털 무인자동화점이다. 다양한 디지털기기들을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무인환전센터는 일반 ATM(원화), 외화 ATM(USD), 멀티외화ATM(EUR, JPY, CNY) 등 디지털 자동화기기 중심으로 운영되며, 원화 및 4개국의 통화 환전이 가능하다. 멀티외화 ATM은 기존 외화 ATM을 업그레이드 해 3개국 통화(EUR, JPY, CNY) 출금이 가능하며, 고객들은 무인환전센터를 통해 다권종의 외화 환전을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14일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사 무인환전센터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무인 외화환전센터 운영을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한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LCC, 내년에도 성장 바통 잇는다 시장점유율 30% 돌파 여부 주목

2019년 항공수요예측 및 전망 보고서

노선 다변화 등 여객 수용 능력 증가

제주항공 항공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내년에도 국제선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손흥구 박사는 14일 항공산업전망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항공수요예측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국제·국내선 항공 여객과 화물 수요 등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선 여객은 올해보다 3.3~9.3% 늘어난 8802만~9417만명으로 예측된다. 예측치 편차가 다소 큰 것은 작년과 올해 '사드(THAAD) 이슈'가 불거지며 중국 여객 추이가 크게 출렁여 변수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항공사 별로 내년도 LCC의 국제선 여객은 올해보다 19.6% 늘어난 30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LCC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연평균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37.6% 이후 2016년 59.5%로 크게 오르더니, 2017년 42.1%를 기록했다. 올해도 24.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국내 LCC들이 노선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여객 수용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형 항공사(FSC)들은 이 시장에서 성장이 둔화했다. 보고서는 국적 FSC의 내년 국제선 여객이 올해보다 0.1% 늘어난 3369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이 시장에서 FSC의 최근 5년 평균 여객 증가율은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LCC가 40%대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적 FSC는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여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선에서도 LCC는 내년 여객이 2.7% 늘겠지만, FSC는 오히려 1.5%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노선별로는 한국-베트남 노선의 여객이 올해보다 23.4% 늘고 한국-중국 노선은 11.1%, 한국-일본 노선은 9.0%, 한국-미국 노선은 6.2% 각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박사는 "내년에는 중국 노선 수요가 회복되고, 일본 노선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선 여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LCC 성장세가 이어지며 내년 LCC의 항공 점유율은 처음으로 30%를 넘길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시들해진 애플?… “아이폰XS, 찾는 사람만 찾아”

르포 | ‘아이폰XS’ 판매 현장 가보니

전작 판매 比 60% 수준 불과
방수 빼곤 성능 향상 못 느껴
160만원 육박하는 가격 한 몫

구형으로 눈돌리고 빌려쓰기도
충성도 높은 고정고객 구매 여전

13일 건대입구역 KT 대리점에 붙은 아이폰XS 렌탈서비스 안내문. /배한님 기자

13일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매장에 ‘아이폰XS’가 쌓여있다. /석대성 기자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XS’가 지난 2일 국내에 출시된 후 2주 가량 지났지만 제품에 대한 국내 사용자 반응은 예전만큼 뜨겁지 못한 모습이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출시 첫 주 이통 3사를 통해 개통된 아이폰XS·XS맥스·아이폰XR은 약 17만대로 추산된다. 전작 아이폰8과 아이폰X의 출시 첫 주 성적인 28만대와 비교하면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이폰XS 판매 부진의 주된 원인은 전작인 아이폰X(텐)과 외관상이나 기능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가격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모델인 아이폰XS(256GB)의 출고가는 156만2000원으로 160만원에 육박한다.

애플은 2년 주기로 아이폰 뒤의 숫자를 올리고 그 다음해에 성능을 향상시켜 ‘S’를 붙여왔다. 2014년 아이폰6를 공개하고 2015년 아이폰6S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아이폰XS는 방수 기능과 처리속도가 향상됐지만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평가다. 방수 가능한 최대 수심이 2m로 전작인 아이폰X(1m)보다 1m 늘었다. 또한 A12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 아이폰X에 탑재했던 A11 칩보다 처리속도를 향상시켰다. 애플에 따르면 A12 바이오닉칩은 A11 칩보다 15% 빠르다. 외관상으로는 두 모델 모두 5.8인치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차이가 없다.

아이폰XS와 전작인 아이폰8, 아이폰X를 모두 사용해봤다는 홍석기(30) 씨는 “카메라 등 성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 납득될 만큼 성능이 강화됐는지 모르겠다”며 “인물모드는 전작인 아이폰X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폰 마니아층이 아닌 일반 사용자는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6S를 사용하다가 최근 아이폰XS를 구매한 김계영(27) 씨도 “얼굴인식과 홈버튼이 사라진 UX(사용자경험)은 이미 아이폰X에 적용됐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며 “혁신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3일 찾은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XS에서) 크게 달라진 건 방수 기능뿐이기 때문에 아이폰X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인기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150만원이 넘는 가격 탓에 XS대신 구형 모델을 택하는 사람도 많다. 아이폰X을 사용 중인 구인이(28)씨는 “아이폰XS 발표 직후 그 돈을 주고 휴대폰을 사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서둘러 구형모델인 아이폰X을 택했다”며 “아이폰 X과 XS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아이폰X을 구매하는 게 당연했다”고 말했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 탓에 아이폰XS를 구매하는 대신 빌려서 쓰는 이용자도 많았다. 13일 돌아본 몇몇 휴대폰 매장에는 ‘아이폰XS 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KT 관계자는 “아이폰XS 출시에 맞춰 ‘아이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비가 훨씬 저렴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많은 부정적 반응에도 기존에 아이폰을 쓰던 사용자는 아이폰XS에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13일 찾은 휴대폰 매장 관계자 다수는 “현재 아이폰XS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한 매장 관계자는 “예약판매 당시에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막상 물량이 풀리니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비싸다고 하면서도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폰만 찾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애플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많아 한 번 아이폰을 사면 계속 아이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이나 LG전자의 V40 씽큐를 추천해도 아이폰XS를 사간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대리점 직원도 “지금 XS로 바꾸는 고객들은 대부분 아이폰 6나 7 시리즈를 쓰던 아이폰 고정고객”이라며 “비교적 최근 나온 아이폰 8이나 X 등을 쓰는 고객의 문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쓰던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재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의 편리함을 꼽았다. 스마트폰 교체 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 다른 애플 기기들과 연동이 편리하다. 아이폰XS를 사전예약해 출시일에 받았다는 김희원(26) 씨는 “아이폰6를 4년 사용했는데 맥북, 아이패드를 사용해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계영씨는 “아이폰은 계정만 설정돼 있으면 바로 연동이 돼서 일일이 배경화면을 바꾸고 앱을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며 “맥북을 쓰고 있어 노트북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바꾸려면 번거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배한님·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롯데마트, 알리페이와 中 관광객 잡는다

오늘부터 전 점포에 알리페이 도입
‘글로벌 블랙 페스타’ 방아쇠 기대

롯데마트 서울역점 고객 쇼핑모습.

롯데마트는 ‘롯데 블랙 페스타’ 행사를 맞아 15일부터 간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Alipay)’를 도입하고, 글로벌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

‘알리페이’란 은행 계좌를 연동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뿐 아니라 송금, 핸드폰 충전, 기차표 구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2004년 출시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 규모의 간편 결제 서비스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롯데 블랙 페스타’는 국내 최대 유통사인 롯데가 10개 유통계열사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로 500만 개 이상의 할인 품목과 1조원 이상의 행사 물량을 준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다.

국내에서 쇼핑을 즐기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페이가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국내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11월 15일부터 전 점에 알리페이를 도입하게 됐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페이(Samsungpay) 도입을 시작으로 엘페이(L.pay), 카카오페이(Kakaopay), 엘지페이(LGpay) 등 4개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의 사용은 최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2분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평균 이용 실적은 362만 7000건으로 전 분기 대비 26.0% 증가했으며, 이용금액은 1174억 200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17.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알리페이 도입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내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환급 등 여행 시 불편했던 점이 손쉽게 해결되며, 현금이 부족하거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어 국내 소비금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흥 롯데마트 마케팅팀장은 “이번 롯데 블랙 페스타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롯데 블랙 페스타가 국내 만의 쇼핑 축제가 아닌 글로벌 블랙 페스타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넥슨 IP 야심작 ‘트라하’… 돌풍 예고

지스타 2018서 신작 공개
3년 동안 개발자 100여 명 투입
여의도 16배 면적 오픈필드 구현

넥슨 신작 IP ‘트라하’ 일러스트.

‘트라하’의 나이아드 왕국 이미지. /넥슨

넥슨이 3·4분기 호실적의 기세를 이어갈 신작 모바일 게임으로 성장 모멘텀 확보에 나선다.

넥슨은 3년간 공들여 제작한 신규 지식재산권(IP)인 ‘트라하(TRAHA)’를 15일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에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넥슨은 이번 지스타에서 트라하를 포함한 모바일 게임 4종을 포함한 라인업 14종을 공개하며 신작 게임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다.

트라하는 언리얼 엔진4를 기반으로 모아이게임즈가 약 100명의 인력을 투입해 3년째 개발 중인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은 지난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4% 오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적은 ‘던전앤파이터(던파)’와 ‘메이플스토리’ 등 넥슨의 장기 흥행작들이 견인했다. 기존 수익원은 탄탄하지만 신규 수익 모델 발굴이 절실하다는 평도 나온다. 이에 넥슨은 지스타를 시작으로 신작 게임 출시에 전념할 전략이다. 특히 기존 흥행작이 아닌 신규 IP인 트라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은 MMORPG들이 익숙한 IP를 활용해 전작의 명성과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넥슨은 신규 대형 IP를 앞세우며 모바일 MMORPG 시장에 흥행 열기를 지피고 있다”고 말했다.

트라하의 특징은 게임 내 방대한 스케일의 오픈필드다. 설산, 사막, 초원 등의 콘셉트를 구현했다. 현재 제작된 오픈 필드 면적을 합산하면 서울 여의도 지역의 16배에 달한다. 각 필드는 최대 5㎞ 사이즈로 구현됐다.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 중 최대 규모다.

오픈필드에서 이용자들은 전투나 생활을 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단순한 카메라 시각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시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다.

무기를 상황에 맞춰 교체할 수 있는 ‘인피니티 클래스’도 눈에 띄는 트라하의 특성이다. 기존 게임 내 캐릭터가 하나의 클래스로 진행되는 전투였다면, 트라하는 장착 무기에 따라 클래스가 무한으로 변한다. 특정 클래스에 구애 없이 상황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고 역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셈이다. 본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스킬과 아이템을 조합해 ‘탱커’, ‘딜러’, ‘힐러’ 클래스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트라하는 넥슨의 미래를 제시할 신규 대작 IP로 기존 시장에서 톱 MMO라 불리는 타이틀들이 전작 IP의 인기를 이어 받았다면 트라하는 높은 게임 퀄리티와 차별화 요소를 무기로 유저들에게 최고 수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Vitamin the House 100% 시베리아 야생의 차가버섯을 직수입하여 12배 농축된 동결건조 농축분말로 담아내었습니다.

취업자 6만4000명 증가… 고용률 6개월 연속 하락

10月 고용동향 발표

건설업·농림어업·보건업 등 증가
도매·소매업·숙박업·제조업 감소
자영업자 5개월째 감소세 이어져

지난달 고용상황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가 고용악화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고, 10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외환위기 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8월의 3000명, 9월 4만5000명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이 조금 나아진 듯 하지만 여전히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고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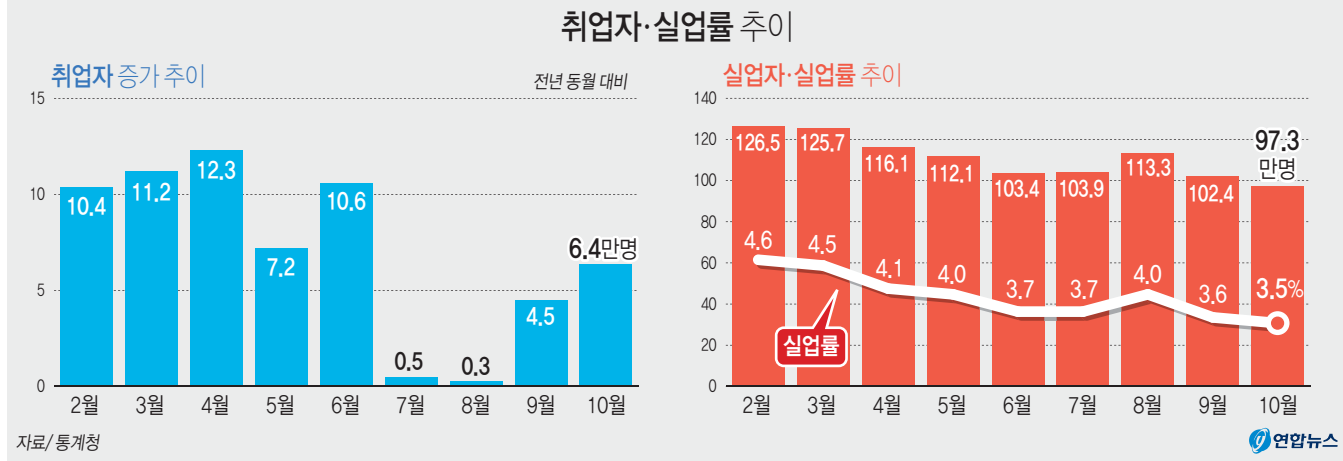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줄어들면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3년 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감소세가 계속됐지만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늘면서 전체적으로 6만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6만1000명 늘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4000명, 15만2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3개월, 3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자료/통계청 연합뉴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35만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0만5000명 줄면서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 9개월 연속 하락은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월~2010년 3월 27개월 연속 이후 가장 길다.

다만 20대 후반 고용률은 70.2%로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건·건설·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이었다.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던 상황보다는 나아졌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의 110만8000명 이후 가장 많다.

20대가 3000명 줄었지만 40대와 50대가 각각 3만5000명, 3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3.5%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1.1%로 1년 전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0.9%p 상승한 22.9%였다.

정부는 10월 취업자 증가가 9월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증가세가 미약한 만큼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고용 개선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전환으로 9월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제조업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 증가세 미약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 노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경제활력 제고 등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고용동향, 여전히 엄중… 추가대책 고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담을 것"

올해 10월 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월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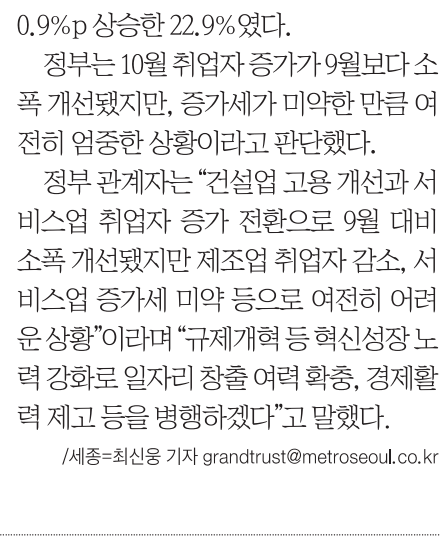
홍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차려진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개선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며 "고용통계 변화를 잘 분석해 정부가 대책 내놓을 수 있는 분야를 치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12월 내내 그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7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에 못 미쳤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최신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문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연합뉴스

文 대통령, 푸틴과 한러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당부·신북방정책 협력 논의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소강국면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협상을 다시 가속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회담장에서도 제재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외에도 신북방정책을 통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러 정상회담 외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 등 구체적 제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라오스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신남방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협력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아세안 정상들이나 브루나이·라오스 정상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인상 후… 시급알바 '줄고' 월급알바 '늘고'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시급형 아르바이트는 꾸준히 줄어든 반면,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올해 알바콜에 등록된 6개 서비스 직종(매장관리, 서빙, 주방, 배달 운송, 사무보조, 노무기능)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급여지급 형태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급여지급 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건별 지급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많은 지급형태는 시급형(60.5%)이다.

특이한 것은 시급형 아르바이트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매달 증가추세다. 시급형 아르바이트는 1월 기준 전체의 71.0%에서 2월 65.5%로 감소한 뒤 4월에는 59.9%로 첫 50%대로 진입했다. 11월에는 53.4%까지 떨어져 1월 대비 17.6%p 줄었다.

시급 대신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증가했다. 1월 기준 월급형 아르바이트는 24.9%에서 출발해 2월 30%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늘어 9월~11월 3개월 연속 38%대를 유지하고 있다. 1월 대비 최대 13.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채용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인크루트가 지난 8월 자영업자 208명 대상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월 수익과 월 매출이 각 64%, 53% 줄고, 반대로 인건비와 점주 직접근로시간은 각 61%,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인건비가 늘었음을 토로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비중을 줄임으로써 직접근로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존의 다수의 시급형 아르바이트 채용에서 소수의 월급형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과 다름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아르바이트 채용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

임종헌 구속기소… 양승태 수사는 아직 '먼 길'

〈前 법원행정처 차장〉 〈前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 30개 넘어
일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핵심혐의
양승태 '증거' 수사 방향 가를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적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 이후 청와대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에 달하는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 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선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환조사가 구속수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관련자 진술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해도, 그가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범죄혐의 소명은 별개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법원이 인정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교정시설 취사업무

국방부, 육군병사 복무기간 2배
대체복무자 연 600명 상한설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확정되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감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해(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천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년 만에 부활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경제자유구역 108개기업 '일자리 박람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14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인천경자구역의 특성에 맞춰 4개 업종별 기업관에 108개사가 참가해 기업별 채용상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전국 7개 경자구역청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관을 설치·운영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 앞서 열린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는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투자지원 개편 동향 등을 공유하고, 경자구역 유공자 37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의 자리도 마련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의 실험장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을 집적화해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경자 구역별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사업 발굴의 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완성차 기업 상생협력 활동 강화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업계 초청으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업계는 내수활성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완성차 기업 대표, 1·2차 협력기업 대표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 2025년경 450만대 수준으로 회복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성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부품업계, 완성차업계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밸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법무부-키르기즈 공화국 형사사법공조 강화 협력

법무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이 14일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 있는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이 청구하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양국이 3건의 형사사법공조와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범종기자

노동부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제단체와 우수기업 임직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명사 특강, 공모전 시상,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도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이대 정원 35% 정시서… 수도권 가천대 지방 전북대 '최다'

수능 이후 정시 많이 뽑는 대학은

서울권, 건국대·국민대 順 뒤이어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330명 선발
인문계열, 이대>중앙대>서울교대 順
정시이월 인원 많은 대학 주목할 만

〈서울 소재 정시모집 많은 대학 상위 10개교〉

구분	대학명	인원	비율
1	이화여대	1,266	35.1%
2	건국대	1,171	38.9%
3	국민대	1,162	40.5%
4	연세대	1,011	20.5%
5	숭실대	949	35.4%
6	홍익대	940	39.0%
7	세종대	898	38.5%
8	한양대	852	30.3%
9	동국대	823	30.5%
10	서울과학기술대	793	38.2%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각 대학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수능 위주 정시모집 경쟁이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많은 대학·학과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수능 성적을 받았거나, 유사한 계열을 지망할 경우 보다 많은 인원을 뽑는 대학이나 학과 지원이 유리한 때문이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각 대학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31만42명(정원내 기준·신학관련 종교대학 제외) 중 25.3%에 해당하는 7만8436명이다. 정시 선발 비율은 서울권(31.2%, 2만938명)이 가장 높고, 수도권(29.4%, 1만3874명), 지방권(22.3%, 4만3624명) 순이다.

◆정시선발 이화여대·건국대·국민대 순

서울권 소재 대학 중 정시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1266명(35.1%)을 선발한다. 이어 건국대(1171명, 38.9%), 국민대(1162명, 40.5%), 연세대(1011명, 29.5%) 순으로 1000명이 넘고, 숭실대(949명, 35.4%), 홍익대(940명, 39.0%), 세종대(898명, 38.5%), 한양대(852명, 30.3%), 동국대(823명, 30.5%), 서울과학기술대(793명, 38.2%)가 정시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으로 꼽힌다.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 글로벌캠퍼스가 1023명(31.7%)을 뽑아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이어 인천대(823명, 33.0%), 수원대(815명, 37.0%), 단국대(744명, 32.6%), 경기대수원캠퍼스(725명, 27.9%), 경희대 국제캠퍼스(700명, 29.2%),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671명, 38.9%), 인하대(661명, 19.4%), 대진대(633명, 35.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606명, 33.1%)가 상위 10위권에 든다.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전북대(1455명, 38.0%), 경북대(1432명, 36.4%), 영남대(1340명, 29.4%), 부산대(1322명, 34.7%) 등 지방 거점 국립대와 대규모 대학들이 1000명이 훌쩍 넘는 신입생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밖에 충남대, 강원대 춘천캠퍼스, 계명대, 조선대, 부경대 등도 1000명 이상을 수능위주 정시모집으로 뽑는다.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 정시로만 330명 '최다'

서울 소재 대학 단일 모집단위 가운데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성대 상상력인재학부(인문·자연 공통)로 241명(주간)과 89명(야간) 등 총 330명을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한다. 이어 인문계를 기준으로 이화여대 인문계열(201명), 중앙대 경영경제대학(148명),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135명), 홍익대 경영학부(101명),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95명),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95명), 연세대 경영학과(88명) 선발 인원이 많다.

자연계열만 보면 이화여대 자연계열(181명)이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 공학계열(135명), 홍익대 서울캠퍼스자율전공(자연예능·119명),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91명),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85명),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정보컴퓨터공학부(각 79명), 중앙대 공과대학(74명) 순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인문계) 중에서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179명), 단국대죽전캠퍼스 경영학부(70명), 경기대수원캠퍼스 경영학과(59명),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경영학부 경영학전공·글로벌경영학전공(각 52명),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자유전공(49명) 순으로 많고, 자연계열에서는 가천대메디컬캠퍼스 간호학과(75명), 중앙대안성캠퍼스 생명공학대학(67명),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65명),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64명), 가톨릭대 생활과학부(62명) 순으로 정시모집 인원이 많다.

◆정시 선발인원 증가한 대학 전략 지원

한편, 수시모집 인원을 다 뽑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대학도 의외로 많다. 이들 대학은 당초 예고된 인원보다 많이 선발해 정시모집 전략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대학의 수시모집 이월로 인한 정시모집 증가 인원은 3996명이나 됐다. 증가 인원으로 보면, 연세대가 당초 정시모집에서 1016명을 뽑기로 했지만, 수시모집에서 297명이 이월돼 정시모집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성신여대(254명), 한성대(193명), 고려대(190명), 성균관대(185명), 서울과기대(179명), 숭실대(176명), 서울대(175명), 서경대(151명), 광운대(153명), 동덕여대(133명), 건국대(132명) 순으로 많았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졸업후 구직까지… 취업 공백기 '10개월'

사람인, 직장인·구직자 1045명 설문
"취업공백기, 채용평가시 감점요소"

졸업후 구직까지 취업 공백기가 평균 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취업 공백기가 채용평가시 감점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람인이 직장인과 구직자 1045명을 대상으로 '취업 공백기와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583명) 중 74.4%는 '취업 공백기'를 가진 후 취직했고, 이들의 평균 취업 공백기는 10개월이었다.

취업 공백기 중 이들이 한 활동(복수응답)으로는 '지속적으로 구직활동'(55.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바이트'(39.2%), '자격증 공부'(38.0%), '공인어학시험 준비'(20%), '여행'(15.2%), '인턴'(9.2%), '국가고시 준비'(7.1%) 등의 순이었다.

취업 공백기가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는 61.3%가 '감점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고, 면접 전형에서 취업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69.1%로 10명 중 7명 꼴이었다.

/한용수 기자

취준생 77% "면접 때 들러리 선 적 있다"

잡코리아, 취준생 1127명 설문
68% "이후 구직과정서 슬럼프"

올해 기업 면접을 치른 취준생 10명 중 7~8명은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면접 들러리라고 느낀 이후 구직과정에서 의욕저하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을 치른 적이 있는 취준생 1127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자신이 들러리라고 느껴진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6.5%가 '있다'고 답했다.

면접 들러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남성(80.9%)이 여성(75.0%)보다 다소 많았고, 기업 유형별로는 외국계기업(80.7%), 대기업(79.9%), 공기업(75.8%), 중소기업(75.1%) 지망 취준생 순으로 많았다.

자신을 면접 들러리처럼 느낀 이유(복수응답)로는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쏟아져서'(4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나에게 질문하거나 응답을 듣는 태도가 건성처럼 느껴져서'(37.1%), '내정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26.5%), '질문을 거의 받지 못해서'(25.4%),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계속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받아서'(24.8%) 등이었다.

올해 면접 치른 취준생 1127명 설문. /자료=잡코리아

들러리라고 느꼈던 면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 51.0%의 취준생이 '아무렇지 않은 듯 준비한대로 담담히 임했다'고 답했고, 15.9%의 취준생들은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임했다'고 답했다. 반면 '포기하고 편안히 임했다(25.9%)', '어차피 떨어질테니 대충 임했다(7.2%)'고 답한 취준생들도 있었다.

면접 들러리라는 느낌은 대체로 당락으로 이어졌다. 들러리라고 느꼈던 취준생의 83.9%가 '해당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답했지만, 그렇지 않은 취준생 탈락 비율은 38.9%로 낮았다. 다만 면접에서 들러리라고 느꼈지만 '포기하고 대충 임했다'고 밝힌 취준생 그룹 탈락율은 91.9%인 반면, '오히려 필사적으로 임했다'는 취준생 그룹 탈락율은 69.3%로 상대적으로 낮아, 똑같이 들러리라고 느꼈어도 면접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면접 들러리 경험이 있는 취준생 그룹에서 '구직, 취업의욕이 떨어졌다(37.2%)', '자격지심 등 슬럼프를 겪었다(21.7%)', '짜증, 스트레스가 늘어 예민해졌다(8.9%)' 등 부정적인 감정이 67.8%로 높았던 반면, '면접 들러리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취준생 그룹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50.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세종대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시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단장 홍성경)이 지난달 30일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서비스를 시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드론 시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보성 글로벌표준 기상 관측소에서 진행됐다.

상시 측정이 가능한 고정형 유선 플랫폼(드론) 및 최대 고도 1km까지 고도 상승이 가능한 이동형 릴레이 플랫폼(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데이터를 관측·수집한다.

세종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사업단이 지난달 30일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글로벌표준 기상 관측소에서 드론으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시연을 하고있다. /세종대학교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시대' 주제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후마니타스학부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05호에서 '기후변화의 시대 앞으로 50년,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 주제 초청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후마니타스학부장 서유경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홍욱희 세민환경연구소 소장의 특강과 참여 학생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미래엔 남북한 공통 '통일 국어 교과서' 배포

초등 저학년용·교사용 학습안내서 등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을 완료하고, 3만5000부를 무상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배포처는 교육부와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전국 초등학교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다.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개발된 국내 첫 남북한 어린이 대상 국어과 교과서다.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사이자 국어 교과서 분야 선두를 달려온 미래엔이 교과서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민간 기업 중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용(1·2학년)으로 남북의 서로 다른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우리말 길'을 비롯해 '우리말 터', '우리말 꽃', '우리말 틀' 학생용 4종과 교사용 학습안내서 1종 등 총 5책으로 구성됐다.

미래엔은 지난 2015년부터 통일국어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양상 등 기초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초등 국어 교육 분야별 전문가와 미래엔 국어 교과서 개발 실무자 등 총 36명이 협력해 이번 교과서를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

말레이시아 골프 9일 15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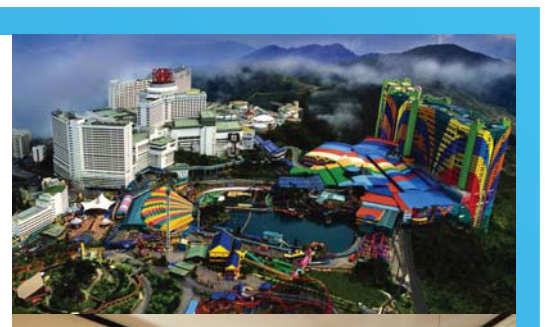
겐팅아와나 CC , 해발 1,100M 평균 기온 2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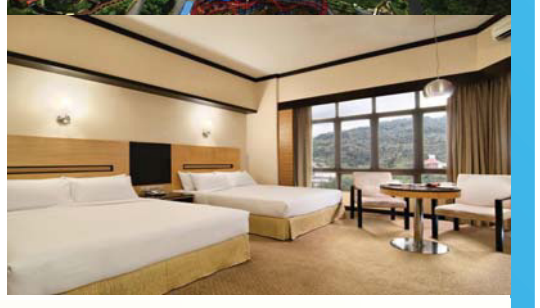
겐팅아와나 골프장 소개

규모 : 18홀 / 파72
위치 : 겐팅하이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설계 : Ronald Fream
부대시설 : 연습장, 테니스, 스쿼시 코트,
탁구장, 헬스클럽, 마사지샵,
연습그린

겐팅아와나 6일 135만원/ 15일 235만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유류세+택스 포함), 여행자보험, 1일3식 / 호텔 2인1실
18홀 그린피 / 전동카트 / 노캐디
불포함사항 : 공항픽업비 50$(4인기준1인)





5성급 호텔
몬테레즈 9일 139만원

1/7일 출발
포함사항 : MH항공.숙박.전일정식사, 그린피(주중36홀.주말18홀).카트.여행자보험
불포함:미팅샌딩비

'치앙마이'보다 시원한 '치앙라이'

태국 치앙라이 대한항공 전세기

치앙라이 2색골프 4박6일 159만원

1월 6일 / 13일 / 20일(일요일) 출발
포함사항 : 항공.숙박.전일정식사.그린피(18홀X4회).카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미팅샌딩비.캐디피.캐디팁.전동카트

해피시티 3박 5일 164만원 / 4박 6일 149만원

1월 10일 / 17일(목요일) 출발 1월 6일 / 13일 / 20일(일요일) 출발
치앙라이 해피시티를 무제한으로 이용
포함사항:왕복항공리조트식사,무제한그린피,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캐디팁(18홀:300바트/인),캐디피(18홀:300바트/인)
카트비(18홀:800바트/2인 1대),공항-리조트 송영비(2만원)

베트남 나트랑/다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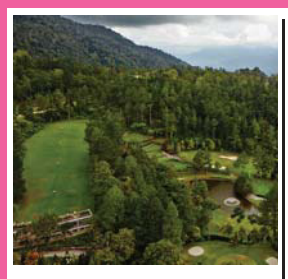
나트랑 빈펄+다이아몬드CC 5일 129만원

포함사항:왕복 항공료&TAX, 리조트 숙박(2인 1실), 식사(조/석식), 골프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캐디팁[다이아몬드베이$12/인/18홀, 빈펄 10$/인/18홀], 중식
왕복 픽업 서비스비용 $50/인[4인 기준~4인], 선택관광(옵션)경비 및 기타 개인경비

다낭 3색 골프 5일 149만원

포함사항 : 숙박비, 조식+석식(특식:씨푸드정식,분짜정식,DK뷔페), 가이드, 그린피+캐디피+카트, 차량, 호이안투어, 다낭시내관광, 전신마사지 90분, 전 일정 1 일 1 병 시원한 생수, 열대과일제공
불포함사항 : 캐디팁($10/18홀), 클럽중식($10~$15/1 회), 전 일정 가이드&기사 경비($50/인), 개인경비 및 매너 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겐팅아와나 9일 159만원 /6일 135만원/15일 235만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유류세+택스 포함), 여행자보험, 1일3식 / 호텔 2인1실 18홀 그린피 / 전동카트 / 노캐디
불포함사항 : 공항픽업비 50$(4인기준1인)

10대 명문 골프장
글랜메리 6일 139만원

1월 23일 출발
포함사항 : MH항공.숙박.전일정식사. 그린피(주중27홀.주말18홀). 카트.여행자보험
불포함:미팅샌딩비

실속/가성비굿
몬테레즈 9일 139만원

1/7일 출발
포함사항 : MH항공.숙박.전일정식사. 그린피(주중36홀.주말18홀). 카트.여행자보험
불포함:미팅샌딩비

라오스

부영CC 7일 139만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 유류세, 택스, 여행자보험, 골프텔 숙박(2인 1실), 전 일정 식사, 1일 36홀 그린피
불포함사항 : 전동카트 + 캐디피(18홀:USD25/1인), 캐디팁(18홀:USD10/1인), 공항-골프장 왕복 교통비 및 직원 봉사료(USD40/1인-4인 이상)

덴사반CC 9일 235만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 유류세, 택스, 여행자보험, 골프텔 숙박(2인 1실), 전 일정 식사, 그린피
불포함사항 : 카트비+캐디피+캐디팁(18홀/1인/30$), 미팅샌딩비(4인기준/1인/40$)

3색 골프 5일 99만원 부영CC / 롱비엔CC / 라오CC / 레이크CC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차량,조/석식,한국인가이드팁, 차량-내생수, 그린피,캐디피,카트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매너팁,캐디팁(10$/18홀),클럽중식(10$~)

대만 가오슝/타이페이

가오슝 VIP(TW) 3박4일 1,349,000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호텔(2인1실), 조식, 석식, 그린피, 송영차량,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전동카+캐디피+캐디팁(18홀1인40불), 클럽 중식(12$~)(기사&가이드팁(1인/전일정/40$)

[청주]타이페이(FE) VIP 3박 4일 850,000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 유류할증료, 공항세, 호텔(2인1실), 조식, 석식, 그린피, 송영차량,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전동카+캐디피+캐디팁(18홀1인40불), 클럽 중식(12$~)(기사&가이드팁(1인/전일정/40$)

필리핀 클락/마닐라/세부

마닐라 바탕가스 명문 2색 4일 799,000원

써밋포인트CC / 말라리얏CC, 목요일 / 금요일 출발

클락 베버리힐스 3박 5일 769,000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유류할증료 및 항공텍스,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호텔 조식 및 석식(한식) 일정 내 99홀 그린피+홀인원 보험 및 환경세
불포함사항 : 클럽중식 및 그늘집 비용($15~/1식), 캐디피,팁+카트비($35/18홀, 1인1캐디) 미팅/샌딩 차량비 (4인 1 $60, 3인 $80, 2인 $120) 클락 공항세(600페소 = 약$13)

세부 인터네셔널 3박 5일 700,000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유류할증료 및 항공텍스, 전 일정 숙박, 레이트 체크비, 무제한 그린피, 조중석식
불포함사항 : 캐디/카트 : $30/1인/18홀 (2인 1카트 기준), 공항 왕복[미팅/샌딩/차량 비용] -4인이상 출발 시 $40/1인, 3인 출발 시 $55/1인, 2인 출발 시 $80/1인, 현지 공항세(850PHP)

일본 오키나와/미야자키

오키나와 3색 골프 4일 109만원

오키나와CC / 오션캐슬CC / 슈레이CC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숙박,식사(조식+석식 1회), 그린카트,락커, 송영차량, 온천 입욕료
불포함사항 : 중석식, 클럽렌탈, 캐디피, 개인비용

미야자키 니치난 4일 54홀 949,000원

토요일 출발
포함사항 : ZE항공, 여행자보험, 숙박,식사(조식+석식), 그린카트,
불포함사항 : 중식,

중국 광저우/하이난 평균 23도

광저우 남사 5일 125만원 / 실버마운틴 9일 150만원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유류세, 택스, 여행자보험,숙박(2인 1실), 조/중/석식, 그린피, 캐디피, 전동카트
불포함사항 : 픽업비 300위안/4인기준, 캐디팁(100위안/18홀, 150위안/27홀/인, 200위안/36홀/인) 비자비 45,000원/인

하이난 미랑만 5일 109만원~ / 블루오션 6일 849,000원

포함사항 : 항공료,택스 및 유류세,호텔(2인1실), 조/중식(한식)/석식, 그린피,캐디피,전동카, 미랑만리조트 조선족가이드 상주, 면비비자
불포함사항 : 미팅샌딩 ₩50,000/안-한국지불 또는 USD50현장지불. 싱글차지 ₩50,000/인/박
캐디팁($25/27홀/인), 전동카싱글차지 $25/18홀/인

장기골프특가

태국

카오야이시티 1일 80,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숙박(2인1실), 조중석식

아티타야 1일 100,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숙박(2인1실), 조중석식

베스트오션 1일 130,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숙박(2인1실), 조중석식

다이너스티 1일 120,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숙박(2인1실), 조중석식

라차캄 1일 140,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주말 18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카오차녹 1일 95,000원
포함 : 그린피36홀,숙박(2인1실), 조중석식

필리핀

메르세데스 1일 70,000원
포함 : 그린피18홀,카트, 캐디,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인터내셔널 1일 70,000원
포함 :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스플랜디도 1일 110,000원
포함 :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갈릴라얏 1일 90,000원
포함 : 숙박(2인1실), 식사(3식 - 한식), 18홀 그린피, 차량, 기사/가이드

IL Tour 02-541-424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 02-542-9822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 golfcondo

11월 예약
30만원 할인

한국/중국/일본/러시아
CRUISE
2019년 5월 효도 여행 예약
6일 1,880,00원~

4/26 인천 출항
한중일 전세 크루즈 6일
인천항 상 해 후쿠오카 부산항

5/1 부산 출항, 5/2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5/6일
부산항 속초항 블라디 보스톡 사카이 미나토 속초항

5/6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6일
속초항 블라디 보스톡 오타루 아오모리 부산항

코스타 세레나 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 35M
- 수용인원 : 3,780명

조기 예약 특전
혜택 1 : 11/30까지 완납시 인당 30만원 할인
혜택 2 : 상담후 3일 이내 예약금 입금시 3% 추가 할인
혜택 3 : 단체예약 할인 8명 3만원, 14명, 5만원, 20명 10만원 추가 할인
혜택 4 : 3/4인실 이용시 3인째,4인째 성인 80만원, 소아 30만원만 지불

롯데관광 크루즈 판매점
02-541-424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 02-542-9822
홈페이지 : http://www.iltour.co.kr
블로그 :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 golfcondo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 건강 파트너
실내 사우나 있는 펜션으로 여행가자!
SALE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국내 출시

-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핼스클럽, 펜션

농막, 캠핑 하우스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 1544-6299

신앙과 군대

진 성 오 소장의
심리카페

'뉴로피드백'이란 기계가 있다. NASA에서 우주인의 인지 기능과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뇌 개발 기계이다. 원리는 바이오피드백을 뇌의 뇌파와 연결하여 일종의 심리적 의도를 이용해 집중력이나 신체 정보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에 있다.

이 기계는 한국에서도 일부 정신과에서 비침투적이고 비화학적인 치료 기법으로 각광받고 주의력 증진이나 주의력 손상이 이는 성인·아동에게 치료용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다. 아마 지금도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프로그램 옵션 중에 영성 체험 루틴이 있다. 뇌신경신학에서 밝혀 낸 것처럼 좌뇌측두엽의 기능을 훈련하여 우주와 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명상 중 경험하는 초월 경험도 뇌의 이 부분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인 주의 집중과 호흡 훈련을 통해 뇌의 매우 색다른 의식상태가 발생하고 이 경험은 종교적 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종의 우주와 합일하는 경험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명상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다소 인위적인 접근이 종교적 체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싶지 않다. 영성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보다는 모르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경험이 신념이 되어 역사적인 변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잔 다르크도 종교적인 색채를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학적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고 제7안식교회의 토대를 닦은 화이트 부인도 비정상적인 경험을 통해 영적 경험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적 환상을 경험하는 경우 측두엽의 종양이 종교적 예언이나 환영 경험, 몰입감과도 연관되는 듯하다. 심지어는 마법사나 샤먼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마약의 일종인 독성강한 버섯을 흡입하거나 섭취하여 변형된 의식을 경험한다는 인류학적인 연구도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공통점은 모두 개인적 경험이고 그것에 대한 막강한 믿음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거기에 우연으로 이뤄지는 기적적인 요소가 작동하면 그 경험을 한 주인공은 영웅이나 살아있는 예수님이 된다. 불확실한 삶을 넘어서는 강력한 통제와 초월의 믿음은 우리가 우주 행성으로 나가는 미래에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다.

진화론의 대가이며 철저한 이성주의자에 회의주의자인 리처드 도킨슨도 다윈이 저술한 책을 마치 성경을 모시듯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손을 대면 다윈의 위대함으로부터 영향을 물려받는 듯 행동한다고 하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술적 사고를 한 조상의 자손인 건 맞는 듯하다.

삶에 왜 이리 많은 신념과 믿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프로이트 말대로 이 우주가 허무하고 죽어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환상과 망상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 인 듯하기도 하다. 한 종교단체의 신자분들과 관련된 군복무 기사를 보고 이러 저런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신앙은 군대보다 강한 듯 하다.

/당신의 마음 연구소장

KB금융,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앞장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오른쪽)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윤양배 협회장이 14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協과 업무협약 체결
안전점검·교육 등 상호 협력 강화

KB금융그룹은 14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두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 공유가치 창출에 관한 협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점검 및 진단에 관한 협력 등이다.

KB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노하우를 활용해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활동과 더불어 그룹 내 시설물 안전 점검, 임직원 대상 교육 등에 있어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산업안전이 경제·사회를 넘어 전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KB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호타이어-메세나協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금호타이어가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 후원을 위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중학생 대상으로 예술적 소질을 표현하는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중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진로체험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용을 기초로 한 놀이형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감정 표현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익히고 신체 동작을 통해 자아를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한 학기당 총 8회(16시간)에 걸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오선근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현대중공업그룹 ◇ 부사장 승진 △ 현대중공업 박승용 노진율 △ 현대삼호중공업 유영호 △ 현대오일뱅크 한환규 △ 현대케미칼 정해원 △ 현대쉘베이스오일 주영민 ◇ 전무 승진 △ 현대중공업 서흥원 남영준 김재을 강이성 정철진 정태일 한주석 조용수 박종환 임영호 한정동 △ 현대미포조선 전승호 박주삼 △ 현대삼호중공업 조민수 △ 현대건설기계 박진석 △ 현대힘스 오세광 △ 바르질라현대엔진 최재봉 △ 현대오일뱅크 김동진 박치웅 이승수 정임주 최수관 허광희 ◇ 상무 승진 △ 현대중공업 황동언 박상복 박용렬 진성호 신이성 최헌 류근찬 이철헌 성기종 △ 현대미포조선 윤창준 △ 현대건설기계 전복문 강명식 △ 현대일렉트릭 정철원 이충걸 △ 현대중공업지주 김종철 심재양 최정욱 △ 현대오일뱅크 박상원 △ 현대코스모 이영우 △ 현대중공업모스 김병조 △ 현대E&T 남성하 ◇ 상무보 신규 선임 △ 현대중공업 이현호 하익석 채명진 최승현 반양규 이종훈 이환식 임대준 우권식 김태진 설귀훈 강병국 유정대 류영석 박정래 이상기 고국 이준엽 주대중 △ 현대미포조선 황태환 진상호 주창수 박태영 △ 현대삼호중공업 최귀용 양회수 △ 현대건설기계 김승한 이은수 김광민 △ 현대일렉트릭 김도균 이정환 △ 현대중공업지주 김정혁 남궁훈 이재영 서범석 △ 현대오일뱅크 김동욱 조진현 문성철 송규석 정성균 김명현 오태길 홍종완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황명익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장완기

◆하이투자증권 ◇ 전무△ WM본부장 김규대 △ 금융상품법인본부장 이대희◇ 상무 △ 전략경영본부장 박용희◇ 본부장 △ 시너지전략본부장 서상원 △ 기업금융본부장 문정운 △ 영남지역본부장 이현철◇ 실장 △ 상품전략실장 신현철 ◇ 부서장 △ WM추진팀장 천세열 △ 시너지금융팀장 이정철 △ 상품기획팀장 이대희 △ 대전지점장 이기영 △ 창원지점장 박영진 △ 구포지점장 이우 △ PI팀장 배재훈 △ 투자솔루션팀장 성홍기 △ 분당지점장 권영민 △ 센텀지점장 박근성

◆OCI◇ 부사장 승진△케미컬 사업본부 김유신 ◇ 상무보 승진△카본·반도체 케미컬 사업부 황세연◇ 전보△최고운영책임자 김택중 △기술부문 부사장 김병찬 △RE 사업기획부 상무 박주문 △사업개발부 상무 주정룡 △군산공장 공장장 한철 △광양공장 공장장 유형곤 △RE사업부 상무보 최성길 △SCM부 상무보 장형규 △군산공장 생산담당 상무보 이성국

부음

▲ 오채원(개명전 이름 오지희·경인일보 편집부 기자) 씨 본인상 = 14일, 전북 전주시 모악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10-8642-7722

▲ 최광묵씨 별세, 최윤정·효성(김포시설관리공단)·희성씨 부친상, 박은혜씨 시부상, 이경섭(포스코 상무)·송오순(수출입은행 타슈켄트사무소 소장)씨 빙부상 = 13일 오후 8시 30분, 서울 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2-2258-5940

▲ 김기년 씨 별세, 김혜경(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씨 모친상 = 12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16일 오전 9시. 053-940-8196

KB증권, 오지현 프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KB증권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우수고객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KB증권과 함께하는 오지현 프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증권의 우수고객 초청 및 신규 VIP고객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2~13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진행했다. /KB증권

롯데 e커머스, 하우투 워라밸 우수기업 최우수상

롯데쇼핑 e커머스 사업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하우투 워라밸' 공모전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김경호 대표(오른쪽)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있다. /롯데쇼핑

CJ푸드빌, 정성필 대표 등 임직원 건강한 도시락 나눔봉사

CJ푸드빌은 정성필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지난 13일 'CJ푸드빌 아카데미'에서 '건강한 도시락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영진과 봉사단은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계절밥상'의 인기메뉴인 '마포식 돼지양념구이', '누룩숙성 옛날 치킨', '가을버섯부추잡채' 등을 밥과 국과 함께 용기에 담아 저녁용 도시락을 만들었다. 위생적으로 포장한 도시락은 저녁 식사시간에 맞춰 CJ도너스캠프가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 3곳에 전달됐다. /CJ푸드빌

CJ CGV, 작은영화관 상생 발전 '역량 강화 워크숍'

CJ CGV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영화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CJ CGV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작은영화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CJ CGV는 이번 극장 실무자 육성을 비롯해 추후 정보운영, 영사기술, 제휴영업, 관객개발, 청소년 영화 교육 등 내년까지 실질적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CJ CGV

동원산업, 해상가족 위한 행복김치 담그기

동원산업이 지난 13일 해상직원들을 위한 '제 6회 동원해상가족을 위한 행복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료와 가족들은 8kg 무게의 김치 250여 통을 만들었다. 또한 가족들이 직접 쓴 편지를 스티커로 만들어 김치통에 부착,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전세계 해상의 동원산업 선단과 해외 기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백호현 기관장(오른쪽)을 포함한 해상직원의 동료와 가족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동원산업

제철 먹거리·해외직소싱 강화… "한달 내내 싸다 싸!"

emart

창립 25주년 '블랙이오' 흥행
오늘부터 대대적 3차 행사 시작

/이마트

이마트가 11월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블랙이오' 행사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제철 먹거리와 해외직소싱 상품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년 대비 방문객수는 5%, 매출은 11% 가량 증가했다.

같은기간 한우 180톤, 삼겹살 150톤, 굴비 100만마리, 계란 45만판, 과일(바나나,토마토,키위,배) 18만개(팩/박스), 랍스터 11만개 가량이 판매됐다.

'한달 내내 블랙프라이데이'을 표방한 이번 개점 25주년 '블랙이오' 3차 행사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신선 제철 먹거리, 시즌 상품 및 해외 직소싱 상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11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는 '딸기'와 '밀감' '아보카도' '자몽' 등 제철 과일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 한우, 삼겹살에 이어 '블랙이오' 3차 행사에서는 '호주산 달링다운와규' 전품목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공·생활·패션·가전도 11월 한달 내내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이마트 단독 기획상품인 '블랙이오 핫팩 대용량 기획세트(40매)'가 9900원에, '블랙이오 위생장갑(100매)'을 2480원에 1+1 판매한다.

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류에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데이즈 성인·아동 부츠, 방한 슬리퍼 전품목', '데이즈 방한양말·타이즈'와 '데이즈 아동·성인 내복'은 2개 구매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외에도 가전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를 행사카드로 결제시 상품별 최대 60만원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카드로 결제시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2007년부터 20개국에서 400여개 품목의 상품을 직소싱하고, 2013년 47개국으로부터 1만2000여개 품목을, 현재는 60개국의 1000여개 업체로부터 1만5000여개 품목(5만여개 상품)의 상품들을 직소싱 하고 있다.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가성비와 품질'로 무장한 다양한 '블랙이오 해외직소싱 상품'을 선보인다.

기존의 이마트 해외직소싱 상품 중 가장 기념비적인 상품은 '일렉트로맨 5.5L 에어프라이어'를 꼽을 수 있다.

'품질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일렉트로맨 5.5L 에어프라이어(중국 직소싱)'은 완판 행진을 벌이며 출시보름만에 1만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6월 출시 후 현재까지 주방소형가전에서 매출 1위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블랙이오 행사를 통해 11월 한달 내내 소비자들에게 더 싸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블랙이오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블랙프라이데이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페이, ATM 출금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한국전자금융과 제휴 맺고 편의 강화
은행계좌 등록하면 계좌로 인출 가능

SSG페이, ATM 출금 서비스 확대. /신세계

신세계 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가 ATM(금융자동화기기) 사업자인 '한국전자금융'과 제휴해 ATM 출금 서비스를 확대, 접근성을 향상하며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편의점 CU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8000여 대의 한국전자금융 ATM에서도 출금이 가능해진다. SSG페이 회원들은 기존 청호이지캐쉬 ATM 3000여 대를 포함, 앞으로 총 1만 1000여 대의 ATM에서 출금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SG페이의 SSG머니 ATM 출금 서비스는 은행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및 카드?멤버쉽 포인트 전환 등으로 충전한 SSG머니를 ATM에서 현금으로 바로 출금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ATM 출금 서비스에서는 SSG머니 출금 외에도 은행 계좌 출금도 가능해 보유한 SSG머니가 없더라도, SSG페이에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를 통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SSG페이 앱 내 'ATM 출금' 메뉴에서 은행 계좌와 SSG머니 중 출금 대상과 이용할 ATM을 선택한 후, 보유 금액 한도 내에 1만 원 단위로 원하는 금액을 선택, SSG페이에 노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SSG머니와 은행 계좌를 통해 각 월 3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ATM의 위치는 SSG페이 앱 내에서 위치 기반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문준석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 플랫폼사업부장은 "고객들이 SSG페이의 출금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자금융 ATM과 SSG머니 외 계좌 기반 출금 방식을 추가했다"면서 고객들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기존 서비스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미샤, 中 광군제 '64억' 매출… 전년比 2배

비비크림 24만개 ·매직쿠션 11만개

중국 남자 아이돌 그룹 9퍼센트(9 PERCENT) 멤버 린앤쥔을 모델로 기용한 광군제 미샤 제품 판매 온라인 페이지. /미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지난 11일 개최된 중국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光棍節)에서 64억 원(400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매출 32억 5000만 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미샤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비비크림이었다. 중국에서 '홍비비'로 통하는 미샤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은 총 24만 개가 판매됐다. 전년 9만 5000개 판매보다 2.5배 이상 더 팔렸다. 2시간 만에 15만 개가 팔릴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M 매직쿠션'은 총 11만 개가 판매됐다. 지난해 4만 3000개 대비 156% 증가했다. 이 밖에 'M 비비부머', '트리플 샤도우' 등이 인기를 얻었다. 특히 '보랏빛앰플',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이모탈 유스 크림' 등으로 구성된 '미샤 타임레볼루션 베스트 비기닝 스페셜 세트'는 판매 2분 만에 준비된 4500세트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사이트 방문 후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은 11.4%로 지난해 6%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에이블씨엔씨 중화사업본부 윤영준 상무는 "중국 유명 남자 아이돌 9퍼센트(9 PERCENT) 멤버 린앤쥔을 모델로 팝업스토어 행사와 티몰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며 "그 결과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지난 해 매출을 초과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쿠팡 땡큐 위크' 놓칠 수 없는 찬스

연중 최대 규모 쇼핑 대축제 시작

쿠팡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대축제 '쿠팡 땡큐 위크(Coupang Thank You Week)'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전, 주방, 출산유아동, 뷰티, 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인기상품 4000여개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삼성, LG, 다이슨 등 인기 가전 브랜드부터 스토케, 페도라 등 프리미엄 출산유아동 브랜드, 로레알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 포트메리온, 행켈 등 생활용품 브랜드까지 200여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베스트 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만나 볼 수 있다. 모든 제품이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만큼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7시에 올해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품 8개를 선정해 최대 50~6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 밖에 주제별로 제품을 분류한 '카테고리관', 브랜드별 인기상품을 모두 모은 '브랜드관'도 준비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쿠팡 땡큐 위크'는 올 한 해 쿠팡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데 함께한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매입 서비스인 '로켓배송' 누적 배송 상품이 10억 개를 돌파 했고, 하루 150만 개 이상의 상품을 차질없이 익일배송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정까지 주문한 제품을 오전 7시 전까지 배송해 주는 새벽배송과 함께 기존에 온라인으로 구입하기 힘들었던 채소, 계란, 유제품 등을 배송하는 신선식품 배송도 시작했다.

/신원선 기자

CU

간편하게 마시는 한 끼
고소함 가득한 '어른우유'

밥을 제때 먹지 챙겨먹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한 우유가 나왔다.

편의점 CU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성인들을 타겟으로 프리미엄 가공유 '어른우유(250㎖)'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어른우유는 믹스넛츠, 미숫가루 2종으로 기존의 가공유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은 맛과 가벼운 한 끼를 찾는 성인들을 겨냥해서 만든 식사 대용 우유다. 두 제품 모두 원유 함량을 높여 부드러움과 포만감을 배로 느낄 수 있다.

어른우유 믹스넛츠는 견과류 특유의 진한 고소함을 부드러운 우유에 녹였고 어른우유 미숫가루는 식사 대용식에 걸맞게 미숫가루와 함께 최근 블랙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검은콩까지 더해 곡물의 건강함을 담았다.

/김민서 기자

'새벽배송 서비스' 인기… 실적 300%↑

GS fresh, 저렴한 배송비 등 큰 호응

온라인 쇼핑몰 GS fresh가 마트몰 최초로 선보인 새벽배송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GS fresh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의 10월 실적이 1월 주문 건수 대비 300% 신장했다. 특히, '새벽 베이커리' 배송 서비스의 경우, 새벽 배송 주문에서 약 40% 비중을 차지했다. 1월 대비 매출은 530% 신장했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GS fresh내의 새벽 배송몰 상품을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 앞에서 상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배송 완료시에는 원하는 시간에 도착 모습 사진이 동봉된 문자가 고객에게 전송된다. 경쟁사 대비 저렴한 배송 비용으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

새벽 베이커리는 제조 시간과 원재료로 차별화를 뒀다. 새벽 베이커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벽 배송만 담당하는 배송센터에 베이킹 시설까지 따로 구비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주문을 받으면 배송하기 전에 센터에서 직접 구워 바로 배송을 진행한다. 또한, 맛있는 빵을 제공하기 위해 크로와상은 프랑스, 뱅드 오 쇼콜라는 네덜란드, 쿠키는 미국 판매량 1위인 오티스 스펑크 마이어사의 생지를 수입해 구워 배송을 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지친 일상 속 재충전이 필요할 땐, 도심서 '패스트 힐링'

스키야키·연어장 먹는행복 누리고 빌딩 숲 속서 점심시간 꿀잠까지 출퇴근길에 보는 '웹 예능'도 대세

최근 코트라(KOTRA)는 '2019 한국이 열광할 트렌드'에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패스트힐링(Fast healing)'을 으뜸으로 꼽았다.

'패스트힐링'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간편하게 힐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일상 속 소소한 휴식을 보장해 주는 패스트힐링 아이템을 한데 모아 소개한다.

◆클릭 한번에 맛과 멋이 식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맛있는 식사와 달콤한 디저트만한 것도 없다.

최근에는 클릭 한번이면 다음날 아침 일찍 힐링푸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했다.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는 음식의 재료를 모두 준비하고 손질해 레시피 카드와 함께 밀키트(Meal Kit)를 제공하는 '블랙라벨 홈 다이닝'을 선보이고 있다. '스키야키', '연어참치장', '양장피'와 같이 재료 준비가 다소 번거로운 메뉴도 레시피 카드에 적힌 순서대로 동봉된 재료들을 간단하게 조리하면 돼 인기가 높다.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 블랙라벨 홈다이닝 밀키트&디저트 /마켓컬리

또, 마켓컬리는 집에서 카페 못지 않은 음료와 디저트로 휴식을 즐기는 '홈카페족'을 위해 SNS에서 인기가 높은 유명 베이커리의 마카롱, 크레이프케이크를 비롯한 좋은 원두브랜드의 입점을 늘려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간편하게 주문한 힐링푸드를 단순히 맛있게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쁘게 플레이팅 해 본인들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하며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로 패스트힐링을 누리고 있다.

◆꿀잠·힐링 보장!

CGV여의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에스타(Sies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으로 지친 직장인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시에스타는 2016년 3월 처음 선보여 여의도 일대 직장인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년 넘게 운영한 결과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해 시행 초기 대비 약 65% 이상 늘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다. 리클라이너 좌석이 비치된 프리미엄관(7관)에서 최대 90분 동안 낮잠을 즐길 수 있다. 좌석 대여를 포함해 음료(tea), 담요, 슬리퍼까지 제공한다. 이용 가격은 1만 원이다.

18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쿠션감이 뛰어난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시트를 도입한 만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총 좌석 수는 96석이지만 1인에게 두 좌석씩 제공해 최대 48명이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다 어두운 조명, 잔잔한 음악과 적정한 실내 온도까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 남성존, 여성존, 커플존을 구분해 보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CGV강변에는 자연 콘셉트의 잔디 슬로프 특별관 '씨네&포레'가 특별한 힐링을 선사한다.

와썹맨, 빅픽처 /스튜디오 룰루랄라, SM C&C·미스틱엔터테인먼트

CGV여의도 시에스타

씨네&포레

상영관은 '그린테리어'(Green+Interior)로 꾸며져 도심 속 한가운데 있는 숲을 연상케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싱그러운 자연향이 관객들을 반기고, 계단을 없앤 완만한 경사의 슬로프형 바닥은 실내 잔디로 덮여 있어 내추럴한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상연관은 공기 정화, 먼지 제거, 가습 효과을 겸했으며, 특히 설치된 산소발생기는 상영관 내부를 실제 숲의 산소 농도 수준으로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좌석은 총 48석으로 1인용 소파 형태의 '빈백'(36석), 쿠션감 좋은 '매트'(8석), 휴양지 느낌의 '카바나'(4석)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만원 지하철, 손안에 작은 행복 '웹 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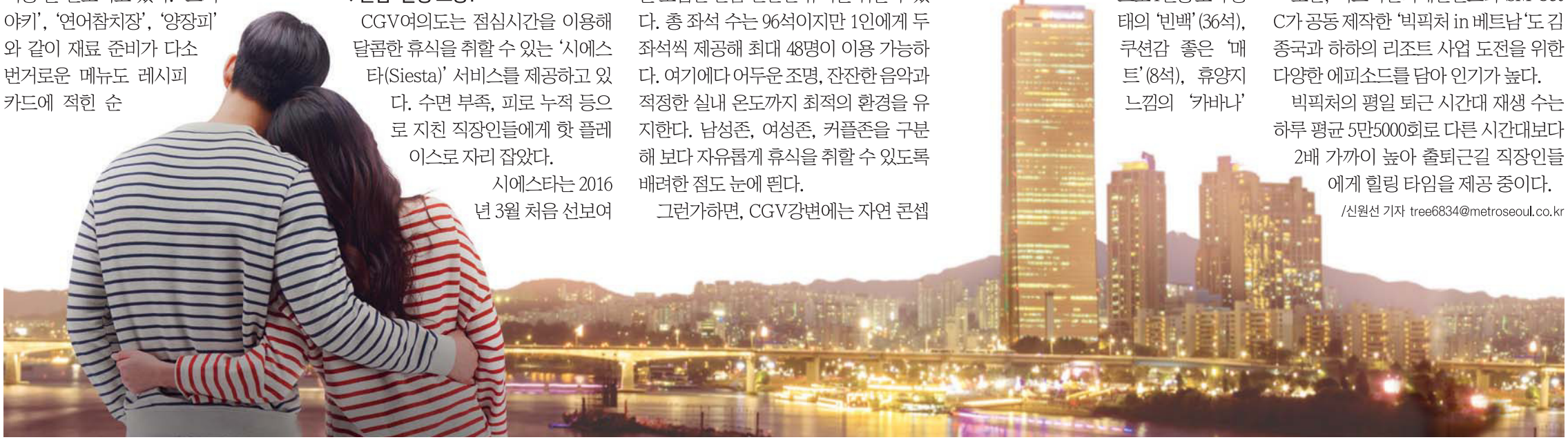
출퇴근길 직장인들을 공략한 짤막한 길이의 웹 예능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여행, 토크, 먹방 등 주제도 다양하고, 러닝타임도 10분 내외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웹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유명한 연예인들도 TV가 아닌 모바일 예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와썹맨'은 박준형의 먹방, 쇼핑, 방문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며 구독자 약 15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SM C&C가 공동 제작한 '빅픽처 in 베트남'도 김종국과 하하의 리조트 사업 도전을 위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아 인기가 높다.

빅픽처의 평일 퇴근 시간대 재생 수는 하루 평균 5만5000회로 다른 시간대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출퇴근길 직장인들에게 힐링 타임을 제공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강스템바이오텍 공장 착공식에는 강경선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앞줄 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스템바이오텍 글로벌 수준 GMP공장 착공

강스템바이오텍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공사비는 약 1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총면적은 2600㎡ 규모다.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3만바이알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GMP 공장 신설은 강스템바이오텍이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비타민하우스 '블랙페스타'서 뷰티박스 이벤트

비타민하우스가 롯데닷컴 '블랙페스타'를 통해 뷰티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롯데 '블랙페스타'는 롯데 계열 모든 유통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비타민하우스는 '블랙페스타' 기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너뷰티 제품들을 한데 모은 '뷰티박스'를 롯데닷컴을 통해 특가로 제공한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펫펨족'을 잡아라!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 호텔업계, 동반투숙 등 마케팅

반려동물과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점차 늘고 있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호텔도 관련 마케팅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텔들이 '펫 프렌들리'(Pet friendly)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을 기본으로 각종 이벤트 및 서비스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의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L'Escape)는 9층에 있는 14개 객실을 반려동물 전용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 10kg 이하의 반려견 2마리까지 입장 및 투숙이 가능하다. 반려견 1마리 동반 시 일반 객실료에 10만원이 추가되며, 1마리를 추가할 경우 6만원을 더 지불하면 된다.

반려동물과 동반 투숙은 물론,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점은 레스케이프 호텔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다. '팔레드 신'에 마련된 '펫 존(Pet Zone)'에서는 펫 의자 또는 펫 텐트를 요청해 비치할 수 있다.

/레스케이프

'웰컴 펫 패키지'도 있다. 레스케이프 호텔은 반려동물 디자인 브랜드 '하울팟(Howlpot)'과 제휴해 강아지 장난감과 간식, 배변패드로 구성된 반려견 웰컴 키트를 제공한다. 또 객실 내에 반려견 하우스와 식기를 비치하고, 목줄과 리드줄 등 반려동물 용품을 함께 제공한다.

레스케이프 호텔이 특정 층에 반려동물 전용 객실을 마련했다면, 오크우드 프리미어 서울과 인천은 전체 객실에서 반려동물 동반 투숙이 가능하다. 객실 내에는 반려동물 쿠션, 식기 등이 비치돼 있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서울과 인천에서는 반려동물 1마리를 기준으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금은 체크아웃 시 객실 가구 및 카펫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울은 14일, 인천은 3일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서울은 7만원, 인천은 5만원의 청소비가 객실 요금에 추가된다. 세금은 별도다.

글래드 호텔에서 운영하는 제주항공 우주호텔도 반려동물 전용 패키지인 '아이 러브 펫(I Love Pet)'을 선보인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아이 러브 펫(I Love Pet)'패키지는 산방산 곶자왈 또는 오설록 녹차 밭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객실에서 힐링 타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몽슈슈 도트 본 토이, 스틱 간식 2종, 휴대용 배변봉투 등이 포함된 펫 기프트 박스가 제공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LG V40 씽큐’로 담은 페루 100만뷰 돌파

남미의 아름다움 담은 영상 인기

LG전자는 자사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ThinQ)’로 남미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26일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경식 보라 커플’이 LG V40 씽큐로 촬영한 페루 여행 영상을 LG전자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했다.

약 2분 40초 분량의 영상은 페루의 매력을 생생하게 표현해 게시한 지 2주 만에 총 100만 뷰를 넘어섰다.

LG전자는 페루 관광청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외국 관광청들과 손잡고 그 나라의 매력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하와이, 3월 두바이, 6월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들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만든 여행 영상을 공개했다.

LG V40 씽큐로 촬영한 페루 마추픽추 영상 캡처. /LG전자

현재까지 LG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해외여행 동영상 누적 조회 수는 450만 뷰에 달한다.

LG전자 관계자는 “LG V40 씽큐는 움직일 필요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여행에서 추억을 남기기에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에쓰오일 에너지 빈곤층에 2억원 상당 난방유 지원

S-OIL은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油), Hope to You’ 캠페인 기부금 2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270여세대에 난방유를 공급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수혜가정을 방문해 직접 드럼통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박봉수 S-OIL 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에쓰-오일 청정등유를 꼭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우리 임직원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S-OIL은 정유업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에 등유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약 1070여 가정에 8억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14일 박봉수 S-OIL 사장(왼쪽)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저소득 가정 난방유 지원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OIL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화목이다. 60년생 직장에서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72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84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를 본다.

소 4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61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을 할 수 없다. 73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85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호랑이 50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62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가끔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 7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6년생 두드려서 열릴 문이라면 있는 힘껏 두드려야 한다.

토끼 51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한다. 63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다. 75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87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결단이 필요.

용 52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척이 근심을 가져온다. 6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88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뱀 53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65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77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9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말 5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66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78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9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양 55년생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67년생 말은 하기 쉬워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 79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91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상대가 알아준다.

원숭이 56년생 열흘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68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80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92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닭 57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81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9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개 58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잊지 마라. 70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되니 주의. 82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94년생 숫자 6, 흰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돼지 59년생 외로움보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71년생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짐을 명심. 83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9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3			
	8	4				6	7	
2			7	6	8			3
1		8	4		6	7		5
		3		5		8		
		9				3		
	9		3		2		6	
6			5		1			8
	3			7			5	

	3		9		8	6		
		9						7
4				7	6		5	
7		4		6				3
		5	3		4	7		
1				9		8		4
	4		6	8				5
5						4		
		1	5		2		6	

스도쿠 정답

9	5	1	4	7	6	2	3	8
8	3	2	1	9	5	7	4	6
7	6	4	2	8	3	1	9	5
6	2	3	7	1	8	9	5	4
4	1	8	9	5	2	3	6	7
5	9	7	6	3	4	8	2	1
3	4	9	8	6	7	5	1	2
1	7	6	5	2	9	4	8	3
2	8	5	3	4	1	6	7	9

8	6	9	2	4	5	1	7	3
2	7	4	9	3	6	5	8	1
5	9	1	3	8	7	2	6	4
6	2	3	7	1	8	9	5	4
4	1	8	5	9	2	3	6	7
9	5	7	6	3	4	8	2	1
3	4	6	8	2	7	5	1	9
1	7	5	4	6	9	2	8	3
7	8	2	1	5	3	6	4	9

문제 제공= 보누스

아듀, 와이브로! 안녕, 5G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우리나라 토종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인 와이브로(WiBro)가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지난달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나섰다. 단말과 장비가 부족하고, 가입자도 줄어 더 이상 서비스 유지하는데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지는 기술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감은 남달랐다. 2006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만든 와이브로는 한때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토종 기술이니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정보통신 전략인 ‘IT 839’의 서비스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다. ‘손안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며 기술혁신의 중심에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와이브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는 초기 음성 통신이 배제된 점 등 다양하지만, 결국 생태계 조성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와이브로와 경쟁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은 1년여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생태계를 넓혀갔다. 그간 ‘에그’로 익숙한 와이브로 기능을 사용하는 넷북 등은 이미 단종된 지 오래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시 와이브로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아무리 고속도로가 넓고 편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죽은 길일 뿐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이 쓴 ‘사람, 장소, 환대’에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자리를 부여받고 환대를 통해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기술에 적용해보면, 인정받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실현화될 장소와 사람들의 환대가 구현이 돼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5G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 모두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밀착시키느냐다.

/silkni@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삶은 한 번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되도록 시행착오는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적정한 시행착오의 횟수는 몇 번일까. 일반적으로는 삼 세 번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세 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적어도 세 번은 되풀이해보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7전8기라는 말도 있으니 오뚝이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끈기 또한 각자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유념해야 하리라. 즉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혹자들을 보면 시류에 편승을 해서 인기 있는 일들에 유행하고 있는 일들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돈도 소요될 것이다. 예를 들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올림픽 4강이라는 쾌거를 누렸었다. 그 당시는 물론 그 이후부터 축구는 더욱 더 대한민국의 인기스포츠가 되었다. 어린 소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구매니아가 되어 유소년 축구단에 가입을 하거나 장래 미래의 꿈을 축구선수로 정한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모든 운동이나 예체능이 그렇듯 최고의 선수나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기까지는 필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에 앞서 타고난 능력은 전제조건이 된다. 자질을 충분이 갖췄을 때 노력도 빛을 보며 결실이 나타나는 법이다.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까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이 이룬 결과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따랐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받는 환대와 보상만을 보며 황홀해한다. 자녀가 가진 사주의 적성과 운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로서 필요한 일이리라. 후회가 없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후회가 덜해야 미래 계획에 초석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84호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법안 발의

'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兆

광물공사 부채, 정부 지원 필요

자본금·적립금 2배 사채발행 가능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지난 13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지만 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주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는 세부방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커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정부의 추가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은 납입자본금의 두 배까지 가능한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두 기관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광물자원공사는 자산 4조1500억원에 부채 5조4300억원, 광해관리공단은 자산 1조6000억원에 부채 32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광업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으로 한 것에 대해 "추가 출자가 가능한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출자 여부나 규모는 예산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광업공단으로 통합해도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이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은 광업공단의 사업 범위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되 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 광산 직접경영, 해외법인 출자에 관한 사업은 삭제했다.

해외자원 직접개발에서 손 뗀다는 방침에 따라 해외투자자산의 관리와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자원개발과 광물자원 산업 분야의 협력사업을 신설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되 해외자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도록 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스마트팜 모습. /농진청

농진청, 2세대 스마트팜 개발

AI가 영상으로 농사짓는 시대 연다

농촌진흥청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을 말한다. 농진청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세대 스마트팜을 도입한 많은 농가에서는 영농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사 환경을 농업인이 직접 설정하고 조작해야 해 농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도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험이 적은 젊은 농업인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지만 ICT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은 인공지능(AI)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생육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현재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을 확립해 검증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여러 작목에 적용해 국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농업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철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고도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농식품부, 14개 공공기관 등 MOU

지역 중소고령농·여성농 판로 확보

앞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전라남도, 나주시는 14일 한전KDN(주) 본사에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유통비용 및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소 고령농, 여성농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4개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호응해 지난 9월부터 10개 기관이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4개 기관은 현재 나주시와 협의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 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및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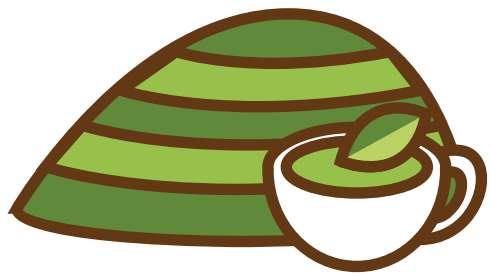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로컬푸드 활용 공공급식 선도모델을 타 혁신도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군·구와 '먹거리 계획 협약(가칭)'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2019년부터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14일 오전 10시 30분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 참석자들이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의지를 다지고 있다. /캠코

캠코,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

근로자 등 부당행위 대응장치 마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오전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인권 선언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도 다졌다.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해 협력업체,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희주 기자 hj89@

aT 농수산 창업 해커톤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농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수산식품분야 창업 해커톤 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의 기획부터 완성까지 결과물을 완성하는 혁신기법을 의미한다.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공모주제는 ▲aT사업과 연계한 혁신 신기술 분야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및 활용분야 등 농수산식품산업(화훼포함) 창업 분야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5개 팀은 12월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작은 포상을 포함, aT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오픈형 사내벤처 운영을 통해 창업 일자리 창출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이번 해커톤 대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수산식품분야 창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접수는 3~5명의 팀을 구성해 'aT창업해커톤 운영사무국'의 신청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되며, 공모전과 관계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를 참고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02-780-4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신보

북카페 '휴 앤 북스' 오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대구 본점에서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지역주민, 신보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북카페 '休 & Books(휴 앤 북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휴 앤 북스는 '누구나 책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신보 본점 1층에 설치됐다. 경제, 사회, 과학, 예술, 소설, 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과 임직원이 기증한 1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앞으로 컴퓨터, DVD 플레이어, 오디오 시설, 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의 쉼터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

NEW TECHNOLOGY FORUM

제3회 뉴테크놀로지 포럼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09:00 – 11: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행사개요 및 문의

행 사 명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주 제 : 5G, 차원이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9:00~11: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 최 :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등 록 : 이메일 및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접수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5만원
forum@metroseoul.co.kr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필수 기입)

문 의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 721-9826

metro

영광군수, 박성국 프로골퍼 초청·격려

KPGA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서
3차 연장전 끝에 생애 첫 우승

김준성 영광군수(왼쪽)가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박성국 선수를 격려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3일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데뷔 11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박성국 프로골퍼와 가족, 종목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격려했다.

박성국 프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경남 김해 정산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에서 3차 연장전 끝에 천금같은 파세이브에 성공해 감격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우승상금 2억 원을 거머쥐었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한 박성국(30·영광읍 무령리)은 그 해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에서 생애 첫 승의 기회를 잡았으나 연장에서 아쉽게 우승을 내준 뒤 무관의 한을 끊어내지 못했다.

김준성 군수는 격려자리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주관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국 프로는 6만 군민의 위상을 높여준 영광의 자랑이다"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며 더욱더 멋진 승부를 펼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

목포시립교향악단, 오늘 밤 정기연주회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정나라의 객원지휘로 제 11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시작한다. 베토벤이 괴테의 비극 '에그몬트'에 감격해 작곡한, 동명 비극을 주제로 하는 극음악의 서곡이다. 총 11개의 베토벤의 서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명곡이다.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정하나의 협연으로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제1번'이 연주된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실내악단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에 제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해 큰 주목을 받았던 정하나는 지난 1996년 도미하기 전까지 송행석, 차인홍, 김용윤 교수를 사사했다. 이후 미국 웰넛힐 예술고등학교 및 뉴잉글랜드 음악원,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국립음대와 뮌헨국립음대, 슈투트가르트국립음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영·호남 상생… 오늘부터 '거창 사과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4년째 지속

2016년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문 광장에서 거창사과데이 특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과로 맺어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의 상생 협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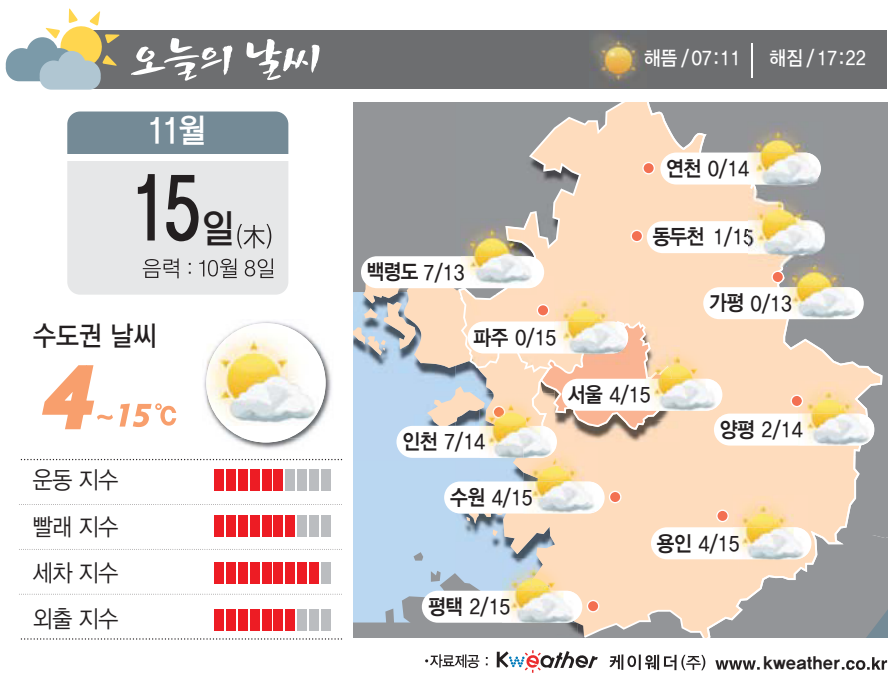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점 지하 1층 특설 행사장에서 '거창 사과축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점 최초로 영남지역 지차체인 거창군과 '거창군 특산물전 대바자'를 진행한 이래 지자체와 백화점 간 대표적인 '영·호남 화합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점 양도원 식품 Floor장은 "광주점에서 진행하는 '거창 사과축제'가 보여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 영호남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주기식 1회성 행사가 아니라 4년째 지속

/광주=봉채영 기자



産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 할 듯

광주시,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추진
산은 "투자협약 체결때 협조할 것"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가운데)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지난 8월 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직접 만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당시 광주시는 산업은행 측에 '광주형 일자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설립에 합의할 경우 산업은행이 신설법인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투자협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해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들어갈 총 투자 규모 7천억원 가운데 자기자본을 28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가 지분의 21%(590억원)를, 현대차가 19%(530억원)를 각각 분담하고 나머지 60%(1680억원)를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자본 이외 나머지 4200억원은 금융권 등의 차입을 통해 채운다.

산업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자본금의 15% 이내에서 참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최대 42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 방식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워 기존 완성차 공장 생산직 연봉의 절반 수준의 일자리 1만여개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현대차와 협약이 완료되면 투자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의견을 나눴다"며 "산업은행은 현대차와 협약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흥군, 바이오산단에 김 가공공장 짓는다

㈜스마타FPC와 투자협약 맺어
1만4000㎡ 부지에 총 135억 투자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에서 ㈜스마타FPC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은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에서 ㈜스마타FPC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스마타FPC(대표 임송재)는 수도권 소재 어업법인으로 수산물 가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FPC는 올해부터 바이오산단에 1만4000㎡ 부지에 1차 70억원, 2차 65억원을 투자해 김, 매생이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이 완공되면 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에너지 등 4개 기업이 11월중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고, 샘표식품㈜ 등 대규모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산단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바이오산단 입주기업은 3.3㎡당 4만 9천원(분양가의 15%)의 군입지보조금과 9만 8천원(분양가의 30%) 도입지보조금이 지급되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보전금이 연 4%로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지훈 기자 jh2255@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목포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후 1~2일 안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간의 접촉으로도 감염되는 급성 위장관감염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끓인 물 마시기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기 ▲채소, 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등이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1325명 명단 공개

전남도, 체납규모 795억원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 원), 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698억 원)으로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A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080호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유통]
이마트
제철 먹거리
해외직소싱 강화
L1

Life

[라이프]
지친 일상 속
재충전 필요할 땐
도심서 '패스트 힐링'
L2

지방세체납 '불명예' 1위 오문철… 김우중·전두환 포함

〈前 보해저축은행 대표〉 〈前 대우그룹 회장〉

지방세 체납자 9403명 명단 공개
오문철 104.6억으로 가장 많아
명단 공개로 자진 납부 유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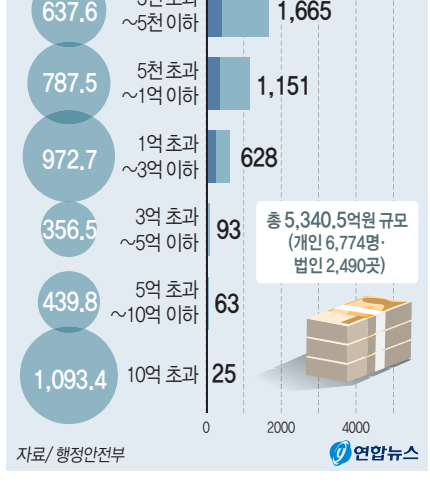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천340억원에 이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천85명), 체납액의 65.0%(5천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700만원으로 1년 새 1천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00억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선박왕'으로 불리다 조세포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혁 씨가 세운 시도상선 자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는 59억3000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7000만원) 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 2억4000만원을 내지 않은 '모은'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에서 내빈들이 전국 저소득 독거노인,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할 각종 생활용품을 상자에 담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송영길·유성엽 국회의원, 탤런트 김호진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노원 181개·금천 54개… 공원도 '빈익빈 부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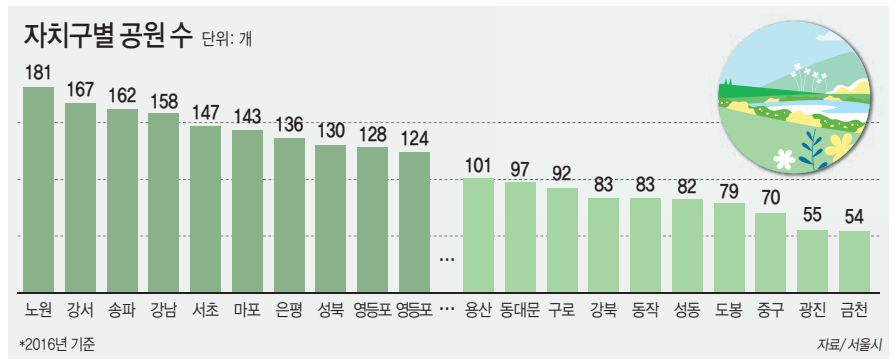
노원구, 서울서 공원 가장 많아
강남3구, 최근 3년간 크게 증가

서울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공원 수는 181개로 금천구(54개)보다 약 3.3배 많았다. 또 최근 3년(2013~2016년)간 공원 수가 15개 이상 증가한 지역은 강남 3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공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공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는 노원구(181개)다. 이어 강서구(167개), 송파구(164개), 강남구(158개), 서초구(147개) 순이었다. 금천구는 54개로 공원 수가 가장 적었다. 광진구(55개)와 중구(70개)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가 15.87㎢로 가장 넓었다. 강북구(14.33㎢), 노원구(14.16㎢), 은평구(13.99㎢), 종로구(11.56㎢)가 뒤를 이었다.

공원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1.27㎢)였다. 이어 용산구(1.79㎢), 금천구(2.20㎢) 순으로 공원 면적이 좁았다.



서울의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5㎡이며,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개의 자치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로 3.4㎡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종로구는 이보다 21배 더 넓은 71.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구별 공원 수를 비교해보면 강남구에는 21개, 송파구에는 18개, 서초구에는 16개의 공원이 더 조성됐다. 같은 기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던 금천구, 광진구, 중구에는 각각 3개, 0개, 2개의 공원이 더 생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부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기부채납으로 인한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공원 등이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는 공원으로 조성될 만한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원 조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대만 로봇기업서 고용창출 성과

경기도 화성에 R&D 시설 설립 약속
대규모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이끌어

대만·홍콩·일본을 순회하며 광폭행보 중인 경기도 대표단이 대만 굴지의 로봇기업인 A사로부터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고용과 투자유치를(투자금액미정)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대표단 단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지시각 14일 오전 10시경 대만 중부지역 소재 로봇기업 A사를 방문, A사측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핵심부품 제조는 물론, 로봇이나 자동화기계,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협약으로 A사는 경기도 화성에 제조 및 R&D 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정밀요소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원가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A사측이 이번 협약에서 정규직 3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내 특성화고 학생의 우선 채용을 약속했다. 이는 도의 최근 2년간 제조업 해외 투자유치 규모 중 가장 큰 고용규모이기도 하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00여개 특성화교 가운데 산업연관성이 높은 2개교를 선정, 이번 MOU에 참여케 했다.

A사의 대표는 "경기도내 특성화고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수한 졸업생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이상적으로 매칭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먼저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감사를 표명한다. A사가 경기도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지원,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인천시, 야생조류 출현지 소독·방역 강화

AI 유입 방지 위해 총력 대응

인천시는 최근 러시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에서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고 있고, 서울(중랑천), 경기(포천천)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소규모농가 등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공동방제단(6개반) 운영, 주요 축산시설(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점검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주변 도로 등에 대해 공동방제단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소독방역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출현지역 입구에 출입

지난 10월 12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실시된 현장방역훈련. /인천시

자제 현수막과 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희망영웅을 찾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숨은 영웅들을
신한이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Hope.
Together.

[희망영웅 프로젝트]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운 영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